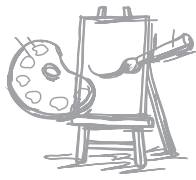




# 가정나

2015 4  
Vol.291





## 이달의 봄내 그림



### 용화산 봄눈

72.7×60.6cm 캔버스에 유화 2013

구자근 작

스케치를 위해 봄 가을로 용화산을 찾는다.

3년 전 4월, 용화산 아래 고성리 마을엔 꽃이 가득 피었건만 산 꼭대기엔 흰 눈으로 가득했다.

봄눈, 춘천이기에 볼 수 있는 풍경이리라.

### 구자근

1942년 영월에서 태어났다. 서라벌예대를 나와 67년 미술교사로 부임, 82년도에 강원도교육청 미술담당 장학사를 맡으며 춘천으로 이주해왔다. 2005년 2월, 고향 영월과 제 2의 고향 춘천에서 62점을 선보인 정년퇴임기념 개인전은 여전히 그에게 각별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춘천현대사생화와 강원구상작가회, 강원아트페어 등을 통해 작품을 매년 선보인다.

춘천시정 소식지 봄내는 월간 무료구독지입니다.  
봄내는 <http://www.chuncheon.go.kr>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웹진 구독(무료)은 [ccc3@korea.kr](mailto:ccc3@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이메일주소, 연락처 기재)

## 목 차 CONTENTS LIST

- |    |                                       |    |                               |
|----|---------------------------------------|----|-------------------------------|
| 02 | 이달의 봄내 그림 - 구자근                       | 28 | 춘주의 문향 - 철쭉의 웃음판 방화계          |
| 04 | 포토스토리 - 춘천의 봄                         | 30 | 내 얘기 들어보시겠소 - 품격리 이영한 씨       |
| 06 | 봄특집 - 봄, 우리 곁으로 스며들다                  | 32 | 봄내어르신 - 남춘천 방통중 입학식 현장        |
| 08 | 춘천은 지금1 - 자전거길                        | 33 | 봄내청소년 - 극단 연극사회 청소년 연극교실      |
| 10 | 춘천은 지금2 - 춘천시청 여자컬링선수단 창단             | 34 | 봄내인 - 춘천시청 태권도팀 오혜리, 국가대표 선발  |
| 12 | 생활행정뉴스 - 옛 춘천여고 매입해 임시 청사로 활용         | 34 | 시민제보 - 칠전사거리 인근 무분별한 간판 정비 필요 |
| 16 | 봄내경운기 - 신포2리에 평화생태마을 조성               | 37 | 낭만춘천 - 축제극장 몸짓 '라 시에스타'       |
| 17 | 봄내만화 - 유환석                            | 38 | 문화단신 - 전시, 공연, 베틀시장, 여행, 강좌   |
| 18 | 우리고장 기업 - 도예마을 점말촌                    | 44 | 행복춘천 - 책 읽는 군부대               |
| 20 | 봄내인터뷰 - 석부작 펴낸 박철환 씨                  | 45 | 안전춘천 - 나들이전 아이들 지문정보 사전등록 하세요 |
| 22 | 봄내문예칼럼 - 소설가 하창수                      | 50 | 의회소식                          |
| 23 | 봄내사랑방 - 강원중 스케치북 동아리                  | 52 | 봄내골소식                         |
| 24 | 우리동네 인문산책 - 봄비에 달라진 도시의 오감            | 54 | 알림마당                          |
| 26 | 의암 류인석 순국 100주년 특별기획 - 어록으로 보는 의암 류인석 | 60 | 공익광고 - 수요일은 가족사랑의 날           |



### 표지이야기

#### 봄 마중 가는 오리배

공지천의 오리배는 어릴 적 추억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영상의 기운이 이어지자 공지천에는 많은 시민들이 나와 오리배를 타며  
봄기운을 만끽하고 있다.



춘천시정 소식지 '봄내'는  
2년연속 (사)한국사보협회 주관  
2013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특별상  
2014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한국정기간행물이사장상을  
수상했습니다.

봄  
SPRING

봄  
VIEWING

춘천의 봄은 상상만 해도 가슴 설렌다.  
 그래서인지 춘천의 봄은 많은 문학작품의 소재로 등장하기도 했다.  
 봄봄을 주제로 꽃샘추위가 심술을 부리는 3월, 봄을 찾아 나섰다.  
 바람을 타고 온 봄이 땅위에 살며시 내려 앉아 다양한 빛을 만들어 냈다.  
 사각의 프레임에 봄의 색을 담았다.

김남덕(본지 상임위원)

버들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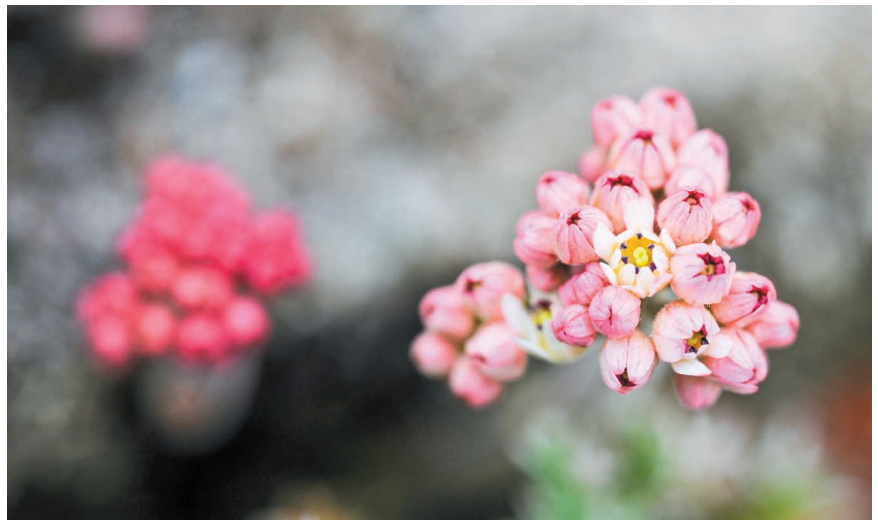




춘천 양묘장



이슬 품은 보리새순



돌단풍



바위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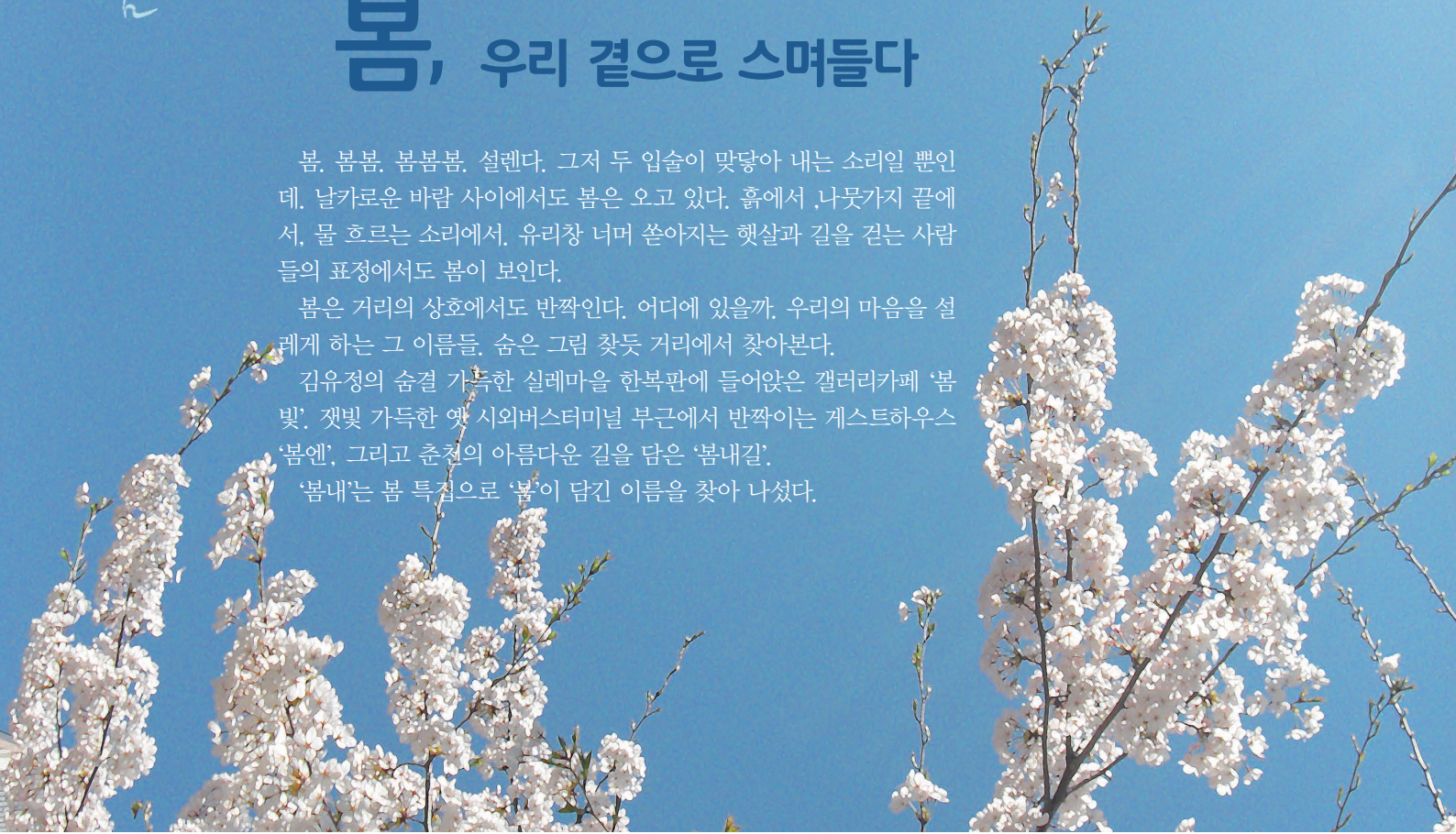
# 봄, 우리 곁으로 스며들다

봄. 봄봄. 봄봄봄. 설렌다. 그저 두 입술이 맞닿아 내는 소리일 뿐인데. 날카로운 바람 사이에서도 봄은 오고 있다. 흙에서, 나뭇가지 끝에서, 물 흐르는 소리에서. 유리창 너머 쏟아지는 햇살과 길을 걷는 사람들의 표정에서도 봄이 보인다.

봄은 거리의 상호에서도 반짝인다.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 이름들. 숨은 그림 찾듯 거리에서 찾아본다.

김유정의 숨결 가득한 실례마을 한복판에 들어앉은 갤러리카페 '봄빛', 햇빛 가득한 옛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반짝이는 게스트하우스 '봄엔', 그리고 춘천의 아름다운 길을 담은 '봄내길'.

'봄내'는 봄 특집으로 '봄'이 담긴 이름을 찾아 나섰다.



## 갤러리카페

# '봄빛'



김유정역 앞에 서서 금병산을 바라본다. 겨울 태를 이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는 '산비탈'(산비탈의 사투리). 야릇한 봄의 기운이 감돈다. 그 빛을 따라 걸으니 금세 당도한 갤러리카페 봄빛. 김유정이 농촌계몽운동을 벌였다던 금병의숙 터 근처에 조성됐다. 몇 년간의 탐색 끝에 지난해 12월 실례마을에 자리잡고 4월 4일 정식 오픈을 앞두고 있는 이곳은 갤러리와 카페, 체험과 교육이 함께하는 문화공간이다.

'봄빛'은 이 공간을 함께 구성해 나가는 생태공예가 구춘서(57)씨가 지은 이름. "봄은 시작이고 봄별은 사람들에게 안락함과 포근함을 주잖아요. 만물이 봄빛을 받아 깨어나듯 우리 춘천지역민들에게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봄빛이 되길 기원하며 지었어요."봄별 가득한 카페엔 구씨의 작품 전시가 한창이다. 앞으로도 사진, 회화 등 다양한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카페 옆 텐트공간에서는 생태공예를 매일 체험할 수 있다. 매주 토요일 낮 동안엔 벼룩시장 '재미난 장터'가 열린다. 카페 운영자 유미정(45)씨는 '봄빛'이 "잠시 들러 차 한 잔 마시고 힘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게스트하우스

# ‘봄엔’



경춘선을 이용해 춘천을 찾는 연간 방문객이 500만명이라는 소식이다. 2010년 말 복선전철 개통 전인 136만 명보다 무려 3배 이상 증가한 숫자다. 출퇴근 직장인만큼 여행자도 늘었을 테다. 현재 춘천에 자리 잡고 있는 게스트하우스는 10개 내외. 몇 년 전만해도 변변한 여행자숙소 하나 없어 호텔과 여관만을 찾던 젊은 여행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지난해 6월 늦봄, 옛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2층의 허름한 여인숙에 들어선 배낭여행자숙소. 직원조합 형태의 동네방네협동조합 다섯 청년이 맺은 결실이다. 이들이 만든 게스트하우스 이름은 ‘봄엔(BomN)’. ‘봄엔’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공모를 통해 접수된 40여 개 가운데 뽑힌 이름이다. 춘천을 상징하는 ‘봄’과 Networking의 초성 ‘N’을 넣어 완성한 이름이란다. 춘천에서 기억에 남는 인연을 만들라는 뜻일까. 그래서인지 ‘봄엔’은 ‘놀자’를 추구한다. 매일 밤 파티를 여는데 올해부터 빈 옥상을 파티장으로 꾸며 본격적으로 더 놀아보려 한다. 로비 한 켠에선 ‘봄앤샵’도 운영한다. 주변 지인들이 손수 만든 물건으로 한쪽 벽이 아가자기하게 꾸며져 있다. 주로 20대 청년들이 찾는다는 이곳은 방학 때는 빈 침대가 하루도 없을 정도로 성수기가 된다. 조한솔 대표는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는게 동네방네의 할 일이라며 앞으로 주변에 2호점을 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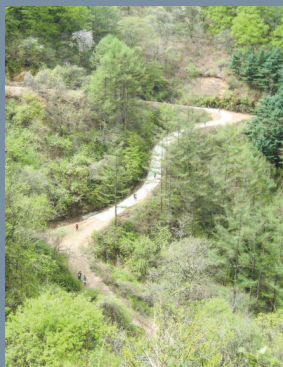
## 춘천도보여행

# ‘봄내길’

춘천의 속살을 걷는 도보여행길인 ‘봄내길’. 춘천의 한글식 이름 봄내만큼 이 길에 어울리는 이름이 어디 있을까. ‘봄내길’은 (사)문화커뮤니티 금토의 걷기와 여행에 관심 있는 이들의 합심으로 2009년 봄에 태어난 춘천의 대표적인 여행 콘텐츠다. 지금까지 모두 여섯 개의 코스가 만들어졌다.

1코스 김유정의 고향 실례이야기길을 시작으로 2코스 강촌의 물깨말구구리길, 3코스 석파령너미길, 4코스 의암호나들길, 배를 타고 떠나는 5코스 소양호나루터길과 6코스 품걸리 오지마을길까지. 이 중 가장 인기 있는 코스는 실례이야기길이다.

생강나무꽃(동백꽃)이 한창인 4월엔 바람 끝에서 알싸한 향이 느껴진다. 김유정의 수필 ‘오월의 산골작이’의 한 구절이다. “산골에는 초목의 내음새까지도 특수하다. 더욱이 새로 트 잎이 한창 퍼드러질 임시에는, 바람에 풍기는 그 향취는 일필로 형용하기 어렵다. 말하자면, 개운한, 그리고 졸음을 청하는 듯한 그런 나른한 향기다. 일종의 선정적 매력을 느끼게 하는 짙은 향기다” 춘천의 봄이 그렇다. 그 향기에 취해 봄내길 이곳저곳을 갈지자 걸음으로 걷는다 해도 그건 봄날의 춘천이기에 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의암호 순환자전거길

# 봄바람 따라 간 자전거여행

## 2% 부족했던 순환 자전거길 ‘100% 완전 연결’

송암스포츠타운~중도 선착장 간 5월에 개통, 단절 구간 없어진다  
 지난 2011년 의암댐~신매대교 구간부터 시작, 연차적으로 벌여

의암호 순환 자전거도로망 구축사업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  
 춘천시에 따르면 국비 등 30억원을 들여 지난해 7월 시작한 송암스포츠타운~중도 선착장 간 자전거도로가 4월말 준공, 5월 중순 개통된다.  
 신설 구간은 송암스포츠타운 모터보트 선착장~샘골 봉우리~삼천동 수변 주차장~사이클 경기장~라테나콘도~중도 선착장을 잇는 1.6km이다.  
 의암호를 따라 자전거도로가 이어지지 않은 마지막 구간으로 도로 폭은 교행이 가능한 3.5m이다. 도로 중간중간에는 의암호를 전망할 수 있는 쉼터와 전망대가 설치된다.  
 의암댐~송암스포츠타운 못지않게 호수 경관이 아름다운 구간이어서 자전거 동호인들의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암호 순환 자전거도로망 구축사업은 지난 2011년 의암댐~신매대교 구간부터 시작됐다. 시는 이어 의암댐~김유정문인비~송암스포츠타운 노선과 공지천 의암공원~삼천동 KT&G 상상마당 구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을 연차적으로 벌여 왔다.  
 마지막 단절 구간인 송암스포츠타운~중도 선착장 구간이 준공되면 의암댐~신매대교~소양2교~근화동 배터~공지천~의암공원~KT&G 상상마당과 이어진 호수 일주 자전거도로가 완성된다.  
 한편 시는 후속사업으로 신매대교~서상리~춘천댐~국도대체 우회도로 용산교차로를 잇는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한다. <도로과 ☎250-3159>

## 의암호 자전거길에 ‘문화와 역사 이야기 옷’ 입힌다

동호인 가장 많이 찾는 의암댐~서면사무소 간 21km 2017년 준공

의암호 순환 자전거길이 한층 품격 있는 코스로 단장된다.  
춘천시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20억원의 국비 지원을 받아 의암호반 이야기길 조성사업을 벌인다.  
이 사업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자전거길을 따라 이어진 문화와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내는 것이다.  
사업 구간은 자전거 동호인이 가장 많이 찾는 의암댐~서면사무소간 21km이다.  
의암호를 배경으로 한 문학작품을 비롯해 역사인물, 유적, 전설 등을 상징화한 조형과 조명시설이 곳곳에 설치된다. 또 나무로 터널길을 만들고 휴게공간도 확충한다.  
올해 사업비는 7억원이다.  
오는 9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11월 착공, 2017년 준공 예정이다.  
<경관과 ☎250-3121>

## 춘천시민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사고 나도 보험 혜택

사망·후유장애·변호사 선임비용 등 보장 내역 폭넓어

춘천시민과 외지에서 온 방문객은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폭넓은 보험 혜택을 받는다.  
춘천시는 지난달 16일 시민과 외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집단 자전거보험에 가입, 이날부터 연중 보험 혜택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자전거도로 확충으로 동호인, 외지 방문객이 늘고 있어 사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춘천시민은 시민자전거보험과 레저형 도로 시설 소유자 배상책임보험 두 가지 모두, 외지 방문객은 시설 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을 적용받는다. 두 보험 다 자동 가입이다.  
시민에게 적용되는 자전거보험은 시 전 지역뿐 아니라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가 나도 보장을 받는다.  
사망, 후유장애, 상해,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에 이르기까지 보장 내역도 폭넓다.  
외지에서 온 방문객은 북한강, 소양강, 의암호 순환 자전거길 등 레저형도로로 지정된 구간(96km)에 한해 적용을 받는다.  
보장 내용은 대인, 대물, 치료비이다.  
춘천시민은 레저형 도로 사고 시 일반 자전거보험에 시설 소유자 배상책임보험까지 중복 혜택을 받는다.  
<도로과 ☎250-3159>

# 올림픽 겨냥 춘천시청 여자컬링팀 창단

코치·선수 5명으로 구성... 2018 평창 국가대표 참가 목표



과거 전국 최고의 빙상도시로 명성을 날렸던 춘천에 여자컬링팀이 탄생했다. 춘천시는 3월20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창단식을 갖고 본격적인 동계종목 육성에 들어갔다. 춘천시는 그동안 태권도와 육상 등 직장운동경기부 체육팀을 운영하면서 우수체육인을 육성해 왔다.

이번 여자컬링팀 창단 배경은 정부와 강원도에서 최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빙상의 도시이면서 수부도시로서 참여와 역할을 함께하고 동계종목 육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동계올림픽 참가를 목표로 창단케 된 것이다.


선수단은 코치 겸 선수 1명과 선수 4명으로 국제대회 경험과 함께 우수한 실력을 겸비한 주니어 국가대표 출신으로 구성됐다.

창단 시점인 1차년도에는 국내대회에 참가하여 성적을 향상시키고, 2차년도부터는 국가대표에 선발될 수 있도록 하며 2018년에는 국가를 대표하여 참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춘천시는 밝혔다. 한편 국내 실업팀은 현재 남자 1개 팀(강원도청), 여자 3개 팀(경기도청, 전북도청, 경북체육회)이 있고, 도내에는 춘천에만 3개 팀(소양중 남녀, 춘천기계공고)이 육성 운영 중에 있다.

▲코치 겸 선수 △박경미(35) ▲선수 △구영은(20) △김지현(19) △오은진(22) △황수빈(20) <체육청소년과 ☎250-3054>



최동용 시장이 박경미 플레이 코치에게 선수단기를 전수하고 있다



컬링  
Curling

4인으로 구성된 두 팀이 얼음 경기장 위에서 둥글고 납작한 돌인 '스톤'을 표적을 향해 미끄러트리 득점을 겨루는 겨울스포츠 경기이다. 볼링이나 셔플보드와 방식이 유사하다. 경기 방식은 먼저 각 팀이 번갈아 가면서 '하우스(house)라 불리는 원 속의 표적을 향해 '스톤'을 미끄러뜨린다. 이 때, 두 명의 '스위퍼(Sweeper)가 스톤의 이동 경로를 따라 함께 움직이면서, 타이밍을 재는 기구와 경험에 따른 판단력 등을 동원하여 '브room(Broom)이라 불리는 솔을 이용해 '스톤'의 진로를 조절, '스톤'이 목표지점에 최대한 가깝게 멈추도록 '센터 라인'을 닦는다.

이를 바탕으로 마지막에 '스톤'을 '하우스'에 얼마나 가깝게 위치시켰느냐로 득점을 계산하게 된다. 스톤의 위치 선정과 경로 선택에 매우 복잡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컬링은 '얼음 위의 체스'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출처 위키백과>

# 도전과 창의력으로 ‘뚝뚝’ 뭉친 사회적 기업

2008년 1개 기업에서 현재 24개 기업 늘어나  
젊은 층이 주도 새로운 지역 가치와 공익 문화 만들어 내



젊은 층이 주도하는 사회적기업들이 도전정신, 창의력, 개성, 삶의 철학으로 자신들의 꿈을 일궈나가고 있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역 내 사회적기업은 지난 2008년 1개에서 현재 24개로 늘어났다. 조건을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9개, 예비사회적기업은 15개이다. 2012년까지만 해도 5개에 불과했으나 2013년 이후 19개가 만들어졌다.

이들 기업은 공익을 추구하며, 대표와 직원의 연령대가 20~30대가 주를 이루고 농업·문화예술·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들의 재능과 하고 싶은 일을 특화해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특징이 있다.

▲통통창의력발전소(대표 김정훈)는 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에 주력하는 기업이다. 직원 5명이 연극, 공예, 음악 등 전공자들로 문화예술의 사회적 중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문화예술 체험 기회가 적은 지역아동센터나 농촌마을을 찾아가 문화예술과 창의력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수익은 상당 부분이 정부 지원 공모사업에서 나오지만 의존도를 낮춰 자체 기획사업을 늘려가려 한다.

<☎070-4223-3972>

▲(주)더뉴히어로즈(대표 이태성)는 옥수수 섬유로 패션 양말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원재료는 친환경적이고 인체에도 해가 없는 자연 소재만을 고집한다.

인터넷을 통해 해외까지 알려져 유럽에서도 주문이 들어온다. 양말에서 티셔츠, 수건으로 상품 아이টে를 늘릴 계획이다. <☎252-7941>

▲동네방네협동조합(대표 조한솔)은 직원조합으로 업종은 지역관광이다. 근화동의 한 여관을 임대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청소년 대상 도심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저렴한 숙박료, 식사에 여행자끼리 어울리는 파티 프

로그램을 선보여 1년여 만에 흑자를 냈다. 두 번째 게스트하우스를 낼 예정이다.

<☎256-5401>

▲비틀에코협동조합(대표 한이근)은 곤충 체험교육 프로그램이 주력상품이다.

강원대 곤충동아리가 모태가 됐다.

나비, 딱정벌레 등 곤충 표본을 다수 확보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찾아가 교육한다.

최근에는 강원대 한 건물에 옥상정원을 꾸미고 도심 양분을 쳐 꿀을 판매하고 있다. <☎257-5331>

▲(주)소박한풍경(대표 지은진)은 디자인 회사다.

고객은 일반기업이 아니라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자신과 같은 공익기업들이다.

수익은 낮지만 이들 기업의 특징을 살린 상호와 제품 디자인을 개발해 자립을 돕는 일에 가치를 두고 있다.

회사 한 칸에는 사회적기업 전시 코너를 만들어 그들의 제품을 홍보, 판매해 주고 있다. <☎256-9360>

이들 기업은 대부분 1인 또는 친구끼리 시작해 직원을 5~6명까지 늘려가고 있다. 춘천시는 사회적기업들이 고용 창출뿐 아니라 지역의 역량을 높이고 있는 데 따라 매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에는 인건비, 시설비는 물론 기술개발, 홍보 마케팅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백영숙 경제과장은 “실력과 열정을 지닌 젊은 층의 사회적 기업 창업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해당 기업이 조기에 자리를 잡고 자신들의 꿈과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경제과 ☎250-3084>

## 옛 춘천여고 매입해 임시 청사로 활용

내년 3월까지 민원·사무공간 배치 가동

춘천시는 신청사 신축에 따른 임시청사로 옛 춘천여고를 활용키로 하고 매입에 나선다.

시는 옛 춘천여고 시설과 부지 확보를 위해 강원도교육청과 매입 계약을 체결한 강원도와 실무협의를 벌여 최근 의견 접근을 봤다고 밝혔다. 시가 임대 사용 대신 매입을 추진키로 한 것은 단기간(2년) 사용 후 반납하는 시설에 보수비용만 10억원 이상을 들여야 하고 시청사 준공 후에는 임시청사를 문화예술단체나 사회단체, 시민 주차장으로 재활용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도는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도교육청에 지급한 상태다. 학교 부지는 1만8,000여㎡, 건물은 8개 동 1만1,000여㎡이다. 감정가격은 모두 89억원이다.

시는 도가 도교육청에 지급한 비용(30억원)은 도에 지불하고 나머지 매입비용(59억원) 정산은 도교육청과 협의, 분납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도, 도교육청과 매입 협의와



함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한다. 시의회 승인과 동시에 건물 안전진단과 보수에 착수해 내년 3월까지 민원, 사무공간 배치를 마치고 임시청사 가동에 들어간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 운동장 부지는 주차장으로 쓴다. 현 시청 부지에 신축되는 새 청사는 내년 상반기 착공, 2018년 6월 준공 예정이다. <공영개발사업소 청사건립TF팀 ☎250-3156>

## 추곡약수터 옛 명성 되살린다

주민·상인들과 충분히 협의 약수터와 마을 상생나서

북산면 추곡약수터의 옛 명성을 되살리는 사업이 추진된다. 춘천시는 10억원을 들여 올해부터 내년까지 추곡약수터 일대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정비사업을 벌인다.

추곡약수터는 약수 효험이 알려지면서 1980년대까지 요양이나 약수 명소로 인기를 끌었으나 1990년대부터 쇠퇴 일로에 있다.

최근 들어 상인들마저 떠나면서 시설물은 방치되고 제대로 된 편의시설도 갖춰지지 않아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거의 못하면서 주변 마을까지 침체되고 있다.

시는 북산면 주민과 약수터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 추곡약수터를 되살리기로 했다.

지난해 문을 연 소양호농어촌인성학교 프로그램, 올해 4월부터 시작하는 농촌관광체험열차 운행 등 이 지역 농촌관광과 연계할 경우 명소화가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약수터 가는 길을 따라 늘어진 상가는 방문객이 줄면서 방치된 건물이 상당수다.

시는 이전에 주민 건의로 개발계획을 마련했으나 사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으며 두 차례나 사업을 중단한 적이 있다.

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우선 올해 3억원을 들여 계곡하천을 정비하고 제대로 된 주차장도 조성키로 했다.

내년에는 상인들과 협의, 방치된 시설물을 철거하는 대신 일정 구역에 생계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광객 감소와 그에 따른 마을 침체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명소로 만드는 사업이 필요하다”며 “주민, 상인들과 충분히 협의해 약수터와 마을이 상생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관광개발과 ☎250-3073>

# 경춘선 타고 1년에 500만명 춘천 찾아

관광 성수기인 5월과 10월 각 50만명으로 가장 많아

경춘선을 이용해 춘천을 찾는 방문객이 연평균 500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말 복선전철 개통 이후 춘천 구간 6개 역사에서 내린 승객은 2011년 467만명, 2012년 500만명, 2013년 499만명, 지난해 50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하차 승객은 전철 개통 전 136만명보다 3.7배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방문객 503만명 중 일반전동차 승객은 323만명으로 64.2%를 차지했다. 월별로는 관광 성수기인 5월과 10월이 각 50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역사(驛舍)별로는 남춘천역이 237만명, 춘천역 173만명, 강촌역 45만명, 김유정역 22만명, 굴봉산역 13만명, 백양리역 9만명 순이다. 연승하차 총 이용객은 2011년 934만명, 준고속열차인 ITX-청춘이 개통된 2012년에는 1,012만명, 2013년 1,010만명, 2014년 1,018만명이다. 전철 개통 후 춘천을 찾은 전체 관광객수는 2012년 1,000만명을 넘은 데 이어 2013년 1천100만명, 지난해는 1,160만명을 기록했다.



한국철도공사는 ITX-청춘 개통 3주년을 맞아 지난 2월 27일 오후 2시 청량리역에서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역사 광장에서는 춘천막국수닭갈비 홍보 및 무료 시식행사가 있었고, 3월4일까지 농특산물 판매 코너가 운영됐다.

<관광정책과 ☎250-3069>

# ‘호수별빛축제’ 연중 상설축제로 만든다

구역과 기간 확대해 4월부터 연말까지 대표 야간 관광상품으로

강원도를 대표하는 야간 경관축제인 ‘호수별빛축제’가 올해부터 구역과 기간을 확대해 연중 상설행사로 열린다.

지난해까지는 5~ 7월 열렸던 호수별빛축제가 오는 4월부터 연말까지 계속 개최된다. 야간 관광상품으로 높은 호응을 얻은 데 따라 사업을 확대했다. 조명 설치 구간도 기존 춘천 MBC 광장 일원에서 산책로 동선을 따라 공지천을 지나 삼천동야구장까지(2.3km) 늘렸다. 시민과 관광객이 몰리는 공지천 전체가 색색의 빛으로 물든다.

조명이 설치되는 곳은 6개 구간이다. 공지천교는 닭갈비, 막국수 이미지 조명으로 호반의 도시 춘천을 알린다. 의암공원 산책로에는 시와 이웃한 홍천, 화천, 양구, 인제군을 대표하는 상징 아치 구조물이 설치된다.

의암공원 야외공연장은 레고 캐릭터로 단장되고 그 앞 인공생태섬에는 애니메이션 구름빵 캐릭터로 대형 조명물이 불을 밝힌다. 의암공원 특별공간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다양하게 변화하는 그래픽 프로젝션이 연출된다.

춘천MBC 일원은 빛 테마공원으로, 조각공원 주변은 연인의 거리로 꾸며진다. 4월부터 10월까지의 춘천MBC 야외무



대에서 매일 밤 상설 문화공연이 이어진다.

여러 장르의 전문공연단과 시민, 동호인이 그 달에 맞는 공연을 선사한다. 이 축제는 강원도와 춘천시, 춘천MBC가 공동 주최하고 춘천MBC가 주관한다.

<관광정책과 ☎250-4247>

## 삼천동 안보회관 뒷산에 생태공원 만든다

국비 5억5천만원 들여 산책로·벤치 등 조성 11월 준공

삼천동 안보회관 뒷산이 생태공원으로 꾸며진다.

춘천시에 따르면 환경부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공모에 시의 계획이 선정돼 이 일대(1만5,600㎡)에 대해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이뤄진다.

이 사업은 대규모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재원으로 지자체와 자연환경보전사업자가 복원사업을 하면 정부가 납부금을 반환해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비 5



억5,000만원 전액이 국비로 투자되어 생태공원, 산책로, 벤치 등의 편의시설이 설치된다.

4월 초 착공, 11월 준공 예정이다.

안보회관 뒷산은 전망이 좋아 공원이 조성되면 익암공원~상상마당~수변공원을 잇는 시민 나들이 코스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환경과 ☎250-3056>

## 주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 예산반영한다

올 40개 분야 319억원 투입

올해 주민들이 의견을 낸 사업에 319억원이 투입된다.

춘천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거나 제안한 40개 사업에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은 각계각층 주민이 참여하는 참여예산위원회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수렴한 것이다.

주 사업은 지역에서 소비하는 닭고기 전량 자체 공급 기반 마련(24억원), 농촌지역 노후버스 교체(18억원), 홀몸(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지원(6억원), 훼손된 등산로 정비(6억원), 옛 캠프페이지 도로 둘레길 조성(5억원), 농촌 생활·농업용수 확대(5억원), 방범대원 활동비 상향 지원(3억원) 등이다.

경로당 신축(9억원), 공지천 인근 주차장 조성(5억원), 마을회관 신축(6억원), 노후 농기계 신형 수시 교체(1억원) 등 주민 불편 해소 사업도 많이 포함됐다.

시는 이들 사업 외에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의견 30여건을 정책에 반영, 추진한다.

학생 재난대처 교육, 닭갈비막국수축제 체험 프로그램 확대, 관광지 무료 주차장 확대, 농업기술센터 직원 보강, 농업 보조사업 자부담 비율 축소, 오지마을 시내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이다.

<기획예산과 ☎250-3820>

## 지역기업에 해외 마케팅비용 확대지원

해외박람회 참가  
외국어 홍보물 제작  
수출물류비 지원

춘천시는 해외 마케팅을 희망하는 지역기업을 공모, 지원한다.

해외박람회 참가, 외국어 홍보물 제작, 수출물류비 지원 3개 사업이다.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1억원이 늘어난 2억원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에 위탁 시행한다.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대상은 수출기업, 수출 준비기업이다.

홍보부스 임대료, 공사비, 통역비, 항공료, 운송비 등 직접경비에 한해 업체당 1,000만원 이내에서 80%를 지원한다.

외국어 홍보물(카탈로그) 제작은 업체당 200만원 이내 80% 지원이다.

수출 물류비는 해외 수출 물류비용의 80%를 지원한다. 1회에 200만원 이내, 업체당 500만원 한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 ☎261-0636,

춘천시 기업과 ☎250-4310>

# 1,000원 이용 ‘희망택시’ 오지마을로 확대 운행

주민 만족도 높아 6곳에서 13곳으로 늘려

1천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는 희망 택시가 외딴 마을 주민들의 교통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다.

지난해 7월 말 운행이 시작된 후 12월까지 5개 마을에서 1,500여명이 희망택시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상 마을은 사북면 가일리, 북산면 청평2리, 부귀리, 대곡리, 대동리, 남산면 서천리 등 6개 리였으나, 이 중 뱃길을 이용해야 하는 대동리는 이용자가 없었다. 대동리를 제외한 5개 마을의 월평균 이용 주민은 300여명꼴이다. 총 운행 횟수는 760여 회로 1개 마을에서 150여 회를 이용했다. 마을당 월 이용 횟수는 30여 회다. 시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만큼 올해는 운행 지역을 13곳으로 확대했다.

새로 추가된 곳은 동면 신이리, 평촌리, 품걸 1·2리, 사북면 원평리, 북산면 물로 1·2리이다. 희망택시는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 주민이 1,000원만 내고 시내 택시를 이용하



면 추가 비용은 시·도비로 지원하는 오지 주민 교통 복지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예산 대비 효과가 커 올해 확대기로 예정했던 5곳에 2곳을 더 추가해 운행 중”이라고 했다.

<교통과 ☎250-3369>

## ‘스마일 콜택시’ 운행 개시

이용자 서비스 강화,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춘천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브랜드 콜택시 사업이 ‘스마일 브랜드 콜택시’(약칭 ‘스마일 콜택시’)란 이름을 갖고 3월 시범운행을 거쳐 4월 1일부터 발대식을 갖고 본격 운행한다.

‘스마일 콜택시’는 관내 1,700여대 택시 중 1,300여대가 참여하는 명실공히 춘천을 대표하는 브랜드 콜택시로서 신속 정확한 배차, 운행상황을 가족에게 알려주는 안심귀가서비스, 택시기사의 엄격한 관리 등을 통해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시는 그동안 시민들의 콜 택시 이용 편의를 위해 택시에 따라 달리 쓰던 콜 전화번호를 하나로 통합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콜번호는 033-913-8282, 이용료는 건당 500원이다.

<교통과 ☎250-3364>

## 춘천시 전국 시티투어 공모사업에 선정

국비 2억 지원받게 돼

춘천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시티투어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28개 시·군이 신청, 춘천시를 포함한 3개 시·군이 선정됐다. 시는 카누, 스카이워크 체험 및 다양한 먹거리를 연계하고 남이섬 관광객을 도심으로 이끄는 방안을 제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를 통해 사업비 2억 원을 지원받는다.

시는 이 예산을 시티투어 홈페이지 운영, KTX와 지하철 역사 동영상 배포, 주요 포털사이트 등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춘천역~남이섬 간 주요 관광지를 경유하는 시티투어와 계절별·요일별로 운행하는 맞춤형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관광정책과 ☎250-3063>

## 전쟁 상흔 깊은 사북면 신포2리에 평화생태마을 조성

올해부터 2019년까지 국비 등 18억원 들여 '수리봉 평화생태마을'

전쟁의 상흔이 깊은 사북면 신포2리가 평화와 생태로 미래를 연다. 춘천시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국비 등 18억원을 들여 이곳에 '수리봉 평화생태마을'을 조성한다.

이 사업은 마을의 상징인 수리봉을 내세워 전쟁과 평화, 농촌문화와 생태를 아우르는 체험시설과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평화생태마을은 마을로 들어서는 말고개 입구에 들어선다.

신포2리는 38선 이북으로 6·25전쟁 때 치열한 격전을 치른 곳이다. 주 시설은 38선 체험마을이다.

방문객 숙박, 취사, 체험시설이 갖춰지고 군량미 창고, 38선 당시 민가가 재현된다.

이 밖에 산책로와 물놀이, 카라반 시설도 계획돼 있다.

시는 사업 지원을 위해 기업, 인근 부대 등 여러 기관단체와 자매결연을 돕고 마을 농특산물 판매를 위한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도 개발한다. 시 관계자는 "접적 마을의 특성을 살려 청소년 안보교육을 특화한 체험마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농정과 ☎250-3765>

## 농촌마을 보건진료 시설·장비 대대적 확충

올해 22억원 투자로 농촌 주민 의료 여건 높여

춘천시는 올해 22억원을 투자, 농촌주민들의 의료 여건을 높인다. 먼저 10억원을 들여 동면에 보건소를 신축하고 최신 의료장비를 확충한다. 현재의 보건소는 1987년에 지어져 시설이 낡고 공간도 비좁다.

동면은 도시개발로 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 65세 이상 노인, 홀몸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다문화가정 등 공공보건으로 서비스 수요가 많아 신축을 추진하게 됐다. 신축 보건소는 지금 건물보다 3배 이상 넓은 연면적 500여㎡에 지상 2층 규모다.

대기실, 진료실, 약국, 보건사업실, 건강증진실, 보건교육실, 회의실 등을 갖춘다. 6월 착공, 11월 준공 계획이다.

동면 보건소 외에도 10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20종 69대의 의료장비를 보강한다. 동산면보건지소, 원창보건진료소 등 4개소는 개·보수 공사를 실시한다.

<춘천시보건소 ☎250-4581>



## 상습 물 부족 마을 새 취수원 개발

생활용수 부족한 4개 면 21개 마을 불편 해소

갈수록 때면 물 부족을 겪는 농촌 마을에 새 취수원을 개발한다. 춘천시는 지방상수도가 미공급된 농촌마을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3년간 25억원을 들여 대체수원 개발을 추진한다. 대상 지역은 서면, 사북면, 북산면, 신동면 21개 마을이다. 지하수나 계곡물이 부족한 20개 마을에는 관정 및 계곡수를 추가로 설치하고 아예 수원이 없는 1개 마을에는 관정을 만들기로 했다.

관정이 추가 설치되는 지역은 사북면 8개 마을, 북산면 6개

마을, 서면 5개 마을, 신동면 1개 마을이다. 새로 관정을 뚫는 마을은 사북면 지촌리 뱃서우지 마을이다.

올해는 9곳에 관정을 설치한다.

사북면 송암리 뒷골, 삼수리, 북산면 오항리 본부락, 산막골, 호시골, 서면 당림리 안반지, 사북면, 지촌리 뱃서우지 마을이다. 3월 착공, 11월 준공 예정이다.

관정 추가 설치 사업이 이뤄지면 4개 면 1,100여명이 물 부족에서 벗어난다. <수도과 ☎250-4941>

# 봄내 만화



\* 유환석



꽃샘추위에...



아직은 조금 춥고...



불안하고 어수선하고...

전세금

보육

봄



조금은 힘들고...

이력서

보육 =

답답하더라도...



어두운 생각은 훌훌 털어버리고...



봄햇살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봄을 만들어 갑니다



겨울을 이겨낸 나무들처럼 희망으로 꽃피울 당신의 봄날을 만드십시오.



점말촌으로의 봄맞이 여행

# 흙 고을에 퍼지는 매화 향기

## 도예마을 점말촌

3년 전쯤인가. 점말촌에 방문한 적이 있다.  
토기장이들의 소박한 야외 전시회가 있던 날이었다.  
매화꽃이 만발하던 4월, 수줍게도 비가 내렸다.  
도자기 끝에 매달린 빗물이 안간힘을 쓰면서도  
결국엔 똑 똑 똑.  
매화 향기만큼이나 선명한 기억이다.

### 2000년에 문을 연 도예마을 점말촌

다시 찾은 점말촌의 3월. 매화나무 가지 끝에 붉은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부르면 막 달려 나올 것만 같은 자세. 마음마저 몽글몽글해진다. 차에서 내리니 복슬복슬한 강아지 두 녀석이 가장 먼저 반긴다. 뒤이어 마중 나오는 박영진 촌장과 전채운 도예가. 두 사람은 부부사이다.

나지막한 동산으로 둘러싸인 어깨 높이의 소박한 공간인 점말촌. 이곳은 전채운 도예가의 형부이기도 한 소설가 이외수의 작업실이었다. 2년여 작업을 하다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가면서 빈 공간이던 이곳에 전씨가 터를 잡았다. 마침 여주에서 도예를 배우고 돌아온 뒤 본격적인 작업을 위한 공간을 찾던 중이었다. 2000년 8월에 문을 열었다. 작업실이 생겨 좋기도 했지만 문제도 하나 생겼다.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아이가 어렸는데 이곳엔 또래가 없었어요. 늘 혼자였죠. 우연히 아이들을 만나 흙을 가지고 놀게 했는데 그게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개인 작업을 하려고 만든 공방은 자연스레 아이들의 흙 놀이터가 되었다. 그 아이는 올해 스무 살이 되었다.

## 가르치고 배우고 ‘도예체험학교’

작업실 천장 가득 동그란 흙이 촘촘히 붙어있다. “아이들이 처음 이 공간에 들어오면 긴장을 해요. 긴장도 풀 겸 흙을 떼어 천장에 붙이는 놀이를 시작으로 프로그램을 이끌죠.” 2000년 초반 깨부터 던져 붙여놓은 거라니 전씨는 “이 중엔 10년 넘게 붙어있는 녀석들도 있을 거예요”라며 환하게 웃는다.

점말촌 도예체험학교는 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아들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작고 귀여운 손으로 흙을 조물락거리는 두 시간, 길 법도 한데 아이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멈추질 않는다.

동물을 빚어내기도 하고 초벌된 컵이나 접시에 안료로 그림을 그려넣기도 한다. 숟가락도 만들고 밥그릇, 국그릇도 만든다. 접시를 빚어내는 아이들도 있다. 돌아가야 할 시간이 왔는데도 아이들은 더 있겠다고 떼를 쓴다. 배가 고프데도 가기 싫다는 표정이다. 어린이집 교사 말로는 아이들이 이곳에 오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린단다. 어른들이 허락한 이 재미있는 흙 놀이터를 어찌 쉽게 떠나랴.

## 5월 아가갤러리 개인전 준비

작업실 테이블 위에 막 물레 작업을 막 마친 토기들이 나열돼 있다. 5월 한 달간 강촌에 있는 아가갤러리에서 부부전을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박영진 춘장은 웃으며 “부끄러워서 시내까지는 못가고 강촌에서 열게 됐다”고 말하지만 스승 부인과 뒤늦게 도예에 빠져든 제자 남편의 잘 빚어진 내공이 이번 전시회에 빛을 발할 것 같다. 봄 공기 가득한 날들이다. 여기에 따뜻함이 더하면 곧 꽃이 필테고 향이 그윽해 질테지. 하얀 매화꽃 가득할 점말촌의 4월. 3년 전 그날처럼 봄비가 내리는 날이면 다시 이곳이 그리울 것만 같다. 이우진 (본지 상임위원)



### 점말촌 도예체험학교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물론 초·중·고교와 일 반단체 소모임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물레 체험, 도자기에 그림 그리기, 나만의 도자기 만들기 등 도예체험은 물론 솟대 만들기, 압화 체험, 토피어리, 천연비누 만들기, 손수건 천연염색 등의 체험도 가능하다.



### 점말촌의 도예작품

현장 구매 및 주문 제작 가능 / 다량 구입 시 할인

사계절 머그컵 개당 1만원

사계절 사각접시(4) 세트 5만원

생활다기(숙우 1개/잔 5개) 세트 5만원

### 체험 문의 점말촌

춘천시 서면 박사로 1045-32

243-9059 / 010-3744-90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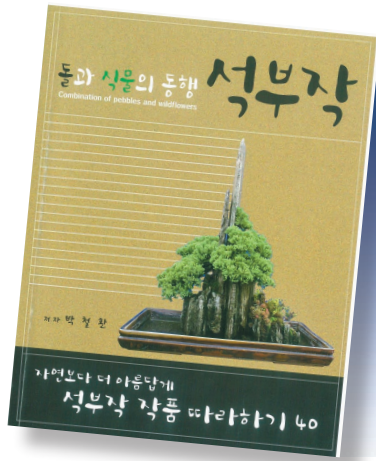
그의 손마디 굳은살은 뒤틀려 있었다. 마디마디 푹 볼거진 손가락과 곳곳이 찢겨 있는 두꺼운 손톱,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으며 수줍게 건네는 그의 손은 슬쩍 보아도 생채기로 가득했다. '돌과 식물의 동행 석부작'은 그가 직접 쓴 책이라고 했다. 제작 과정을 사진과 글로 꼼꼼히 정리해 내용은 알차보였다. 궁금해졌다. 평범해 보이는 그가 이런 책을 낸 이유를. "5월이나 돼야 농장에 꽃이 활짝 필 것"이라고 했지만 봄내 편집실은 4월 봄 특집을 준비하며 그의 작업실이자 농장인 '식주원'에서 미리 그를 만났다. 다행히도 봄별이 그윽한 날이었다.

이우진 (본지 상임위원)

## 작품 하나하나에 생명 자연 그대로의 삶 연출

— 석부작 펴낸 박철환 씨





## 꽃집 운영하다 석부작에 관심 갖게 돼

석부작은 돌에 야생화 등을 아름답고 조화롭게 붙인 작품을 말한다. 돌과 식물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해 작품 하나하나가 작은 자연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끼와 뿌리가 돌을 덮고 꽃향기를 더해줘 살아있는 예술로 부르기도 한다.

박철환씨는 30여 년 전만 해도 꽃집을 운영했었다. “농장은 이제 12년째”라는 그는 “자연에 더 깊게 다가갈 수 있어 꽃집 대신 농장을 운영하며 야생화를 연구하고 석부작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야생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춘천우리꽃사랑모임’에 오래 참가해왔다. 이 모임은 매년 봄마다 강원도립화목원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그는 이 자리에서 야생화는 물론 석부작도 함께 선보였다.

## 5년전부터 계획 지난 1월 결실

“자연을 연출하기 좋아해” 시작한 석부작은 초기엔 마냥 어렵기만 했다. 참고할 만한 도서를 찾았지만 쉽지 않았다. 박씨는 “그동안 석부작과 관련해 도움 받을 수 있는 국내 책이 없어 직접 출간을 마음먹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5년 전부터 계획해 그동안 자료를 모아 딸들의 도움을 받아 지난 1월 결실을 맺었다.

그는 책에서 석부작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무얼 준비해야 하는지, 어떠한 과정으로 작품을 만들어 내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디자인 구성요소는 물론 식물의 특징, 붙이는 과정, 키우는 방법까지 그의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그는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만드는 게 어려우면서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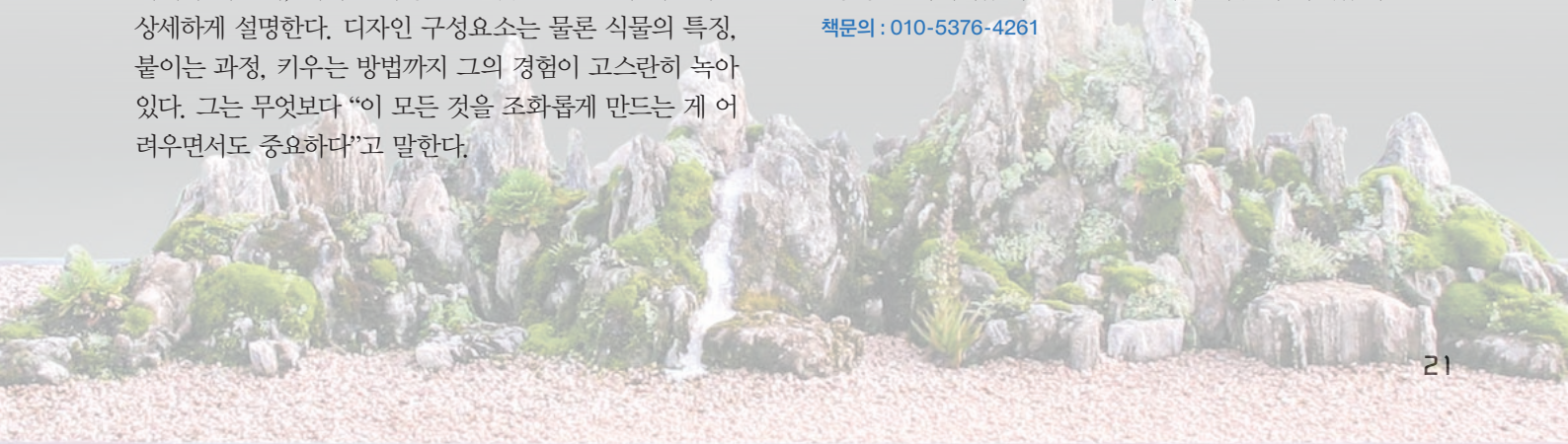
석부작의 든든한 배경이 되는 돌은 주로 중국에서 들어온 부석(물에 뜨는 돌)을 쓰고 꽃은 철쭉, 매화 등의 관목류와 야생화를 주로 쓴다. 잘 어울려서이다. 디자인의 영감은 주로 산에서 얻는다. 일 년에 한두 번은 설악에 들어 너털한 시간을 두고 바위와 꽃, 주변 풍경을 바라보며 걷는다. 나머지 시간엔 설악을 대신해 매주 춘천 근교 산행을 다닌다. 주로 찾는 곳은 대룡산과 금병산. 지인 부부와 동반해 야생화도 살피고 사진도 찍어 둔다. 설명은 그의 몫이다. 지난해엔 춘천분지 산행까지 마쳤다.

## 농장, 삭주원에 담긴 그의 꿈

동내면 신촌리에 위치한 그의 농장은 10여m 되는 하우스 두 동이다. 우선 한 동은 야생화 천국. 기분 좋은 향이 코끝에 머문다. 천 리까지 향이 난다는 천리향이다. 애기동백은 꽃을 밀어내기 직전이다. 다섯 가지 복을 준다는 오모수와 알싸하고 톡 쏘는 겨자 맛이 돌아 물김치로도 만들어 먹는다는 논쟁이쟁이, 오래 산다는 풍년화, 조팝나무 같이 생긴 섬유화, 물 함빡 머금은 진달래와 활짝 핀 철쭉, 이제 막 푸른 잎사귀를 내보이는 쥐똥나무까지 작은 꽃들의 봄맛이 향연이 곳곳에서 펼쳐진다.

옆 동의 자두나무엔 이미 꽃이 활짝 피었다. 책에서 보았던 석부작들이 한가득 모여 있다. “그동안 한 번도 세어보지 않아 개수는 모르겠다”고 말하는 그에게서 작품의 숫자보다는 만드는 과정의 즐거움이 더 큰 듯 느껴졌다. “건강만 허락된다면 석부작 공원을 만드는 게 꿈”이라고 말하는 그가 어서 회복해 그 꿈을 이루기를 고대하며 봄기운 가득한 농장을 빠져나왔다. 오는 길 내내 봄바람이 가득했다.

책문의 : 010-5376-4261



# 서점이 있던 자리



20년 전, 그러니까 1995년 4월의 어느 해 질 녘,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의 뒷골목을 어슬렁거리던 나는 조그만 서점을 발견하고 불쑥 들어섰다. 서점치고는 좁작다 싶었는데, 가게 안을 가득 채운 향기가 달랐다. 새 책에서 풍기는 뽀뽀한 냄새와는 뭔가 다른, 곰삭은 듯 풀어진 그것은 냄새가 아니라 향기였다. 서점의 이름은 잊었지만, 첫 외국 여행의 설렘을 고스란히 가슴에 안고 들어선 그곳은 채 열 평이 안 되는 중고서점이었다. 나는 혹시 발견할지도 모를, 번역서로만 읽었던 외국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으로 찬찬히 서가를 둘러보았고, 그곳을 나설 때 내 손에는 돈 맥퍼슨과 루이지 브로디가 편집한 ‘할리우드의 여배우들(Leading Ladies)’과 짐 갓볼트가 쓴 ‘재즈의 세계(The World of Jazz)’가 들려 있었다.



로 꾸며진 작지 않은 서점에는 다양한 책이 진열되어 있었다. 서점을 빠져나오던 내 손에는 황정견(黃庭堅)과 하주(賀鑄)의 사집(詞集) 두 권과 송사(宋詞), 그리고 원가(袁珂)의 주석이 붙은 ‘산해경(山海經)’과 ‘사람이나 사물, 혹은 예술작품의 오점이나 단점을 지적하다’는 뜻의 심추(審醜=審丑)라는 묘한 제목이 붙은 중국어 번역서가 들려 있었다.

내가 작가라 그런지, 여행지에서 만나는 곳 가운데 유난히 오래 기억에 남는 건 서점이다. 뉴질랜드 북섬의 오클랜드에서 만났던 천장이 높다랗던 서점, 일본의 대형쇼핑몰에서 만났던 널찍한 서점, 베이징의 오밀조밀한 시장통에서 만났던 잡화점 같은 서점들. 이런 서점들에 대한 회상의 끝에는 늘, 어김없이, 내가 사는 춘천이 놓인다. 그중에서도 아이가 어렸을 적 명동에 갈 때면 으레 들르곤 하던 청구서점과 학문사가 있다. 그 안에, 빛바랜 사진처럼, 까치발을 돌아 고사리손으로 동화책을 넘기던 아이가 있다. 그 너머로 이국의 한 남자가 불쑥 떠오른다. 낯선 여행지에서 서점을 찾고 있는, 작가인 남자 그에게 춘천은 어떤 곳으로 기억될까, 궁금하다.

지난 1월 중순, 중국 상하이 지하철 10호선을 타고 ‘상하이도서관역’에서 내려 프랑스로 가는 출구를 찾던 나는 푸른색 조명에 휩싸인 애드거 앨런 포와 버지니아 울프의 사진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다. 지하철 구내에 있는 서점이었다. 나는 흘린 듯 서점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서점 입구의 의자에 앉아 있던 공안(公安) 두 명이 서점으로 들어서는 나를 희번덕거리는 눈으로 노려보았다. 그들의 손에는 책이 쥐어져 있었다. 묘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둘 중 인상이 덜 무서워(!) 보이는 사람에게 다가가 영어와 중국말을 섞어 말했다. “캐 유……파이자 오(拍照)?” 사진을 찍어줄 수 있겠느냐는 뜻을, 그런 식으로 전한 것이다. 서른살쯤 되어 보이는 감청색 공안복을 입은 사내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푸른색 네온에 싸인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난 뒤, 나는 좀 살살이, 서점을 뒤졌다. 현대식으

## 페이스페인팅 · 풍선아트로 만든 기쁨

매년 50시간 이상 봉사하는 강원중 스케치북 동아리  
2014 강원도 청소년 자원봉사자대회 대상 받아



봉사하는 기쁨을 몸으로 배웁니다.  
강원중 스케치북 동아리(지도교사 박은영)는 페이스페인팅과 풍선아트로 매주 재능기부하고 있다.  
신학기를 맞아 새대기가 들어 온 요즘 봉사를 위해 페이스페인팅과 풍선아트 배우기가 한창이다.  
신입생들은 2주에 한 번씩 전문가의 강습을 통해 배우기 시작해 보통 3개월 정도면 봉사활동에 나설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된다.  
지난 2010년 만들어진 동아리는 현재 1학년 6명, 2학년 6명, 3학년 8명 등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소속 학생들은 매년 평균 봉사시간이 50시간 이상을 기록할 만큼 왕성한 활동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동아리의 봉사활동은 방학 중에도 쉬지 않고 이어진다.  
'멋지게 힘차게 세상을 흔들어라'는 슬로건으로 활동하는 스케치북은 봉사활동을 통해 긍정적 마음을 갖고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한 달 동안 3주간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한주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달에도 담작은도서관과 굿네이버스와 함께 캠페인을 벌이는 등 알찬 일정이 잡혀 있다.

스케치북 동아리 기장 반정환군은 "작은 노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너무 좋고 주말마다 펼치는 봉사활동을 통해 봉사하는 기쁨을 배우게 된다"고 했다.

학생들은 봉사활동으로 2014 강원도 청소년 자원봉사자대회 대상, 2014년 자원봉사자대회 강원일보 사장상, 춘천시자원봉사자대회 춘천시의장상 등을 수상한 영광을 안았다.

한편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존중하는 동아리 학급 중심 교육을 실시해 호평을 받고 있는 강원중은 27개의 다양한 동아리가 활동 중에 있다.

<문의 ☎258-4754>

김남덕 본지상임위원

# 봄비에 달라진 도시의 오감

봄내편집실

## 한겨울에 스며드는 봄 기운

비가 내렸습니다. 봄비입니다. 가문 땅을 적셔준 단비입니다. 옛 사람들은 '희우(喜雨)라 했지요. 이맘때 심사로 마침맞은 한시가 있습니다. '좋은 비는 시절을 알아/ 봄이 되니 내리네/ 바람 따라 몰래 밤에 들어와/ 소리 없이 촉촉이 만물을 적시네/ 들길은 구름 덮여 어둡고 / 강에 뜬 배만 불빛을 밝히네/ 새벽에 붉게 젖은 곳을 보니/ 금관성에 꽃이 활짝 피었네' 당나라 시문학의 절정을 이끈 사람이죠. 두보의 '봄밤에 내리는 기쁜 비(春夜喜雨)'입니다.

그가 말년, 지금의 쓰촨성(사천성) 청두(성도)에 초당을 짓고 전원생활을 할 때 쓴 작품입니다.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금관성이 청두입니다. 대나무숲 초당 가까이 완화계(浣花溪)라는 아름다운 계곡이 있었지요. 다른 이름으로 강촌(江村)이라 했습니다. 몇 해 전, 이곳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었



는데, 제목이 '호우시절(好雨時節)'로 기억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못지않은 봄 시가 있습니다. '봄비 부슬 부슬 내리더니/ 한밤에 나직이 빗소리 들리네/ 눈 녹아 앞개를 불고/ 새싹 파릇파릇 돋았겠구나' <봄의 흥취, 정몽주>

봄비는 봄비인가 봄니다. 흠족치 않게 내렸는데도, 하룻밤 사이 도시의 오감이 달라졌습니다. 어롱어롱 풀빛이 번지고, 우듬지를 오가는 새 소리는 옥타브가 높아졌더군요.

어느덧 춘분입니다. 이제부터는 낮이 길어집니다. 태양이 적도를 넘어 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옛 사람들은 음(陰)기운이 최대치에 달하면 반드시 양으로 넘어간다 했지요. 한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는 것은 자연의 이치니까요.

## 자연의 이치는 물극필반(物極必反)

밤(陰)이 가장 긴 동짓달(음력11월)은 주역 64괘 중 복(復)괘에 해당됩니다. 6개의 효(爻: 음, 양을 나타내는 막대기) 중 맨 아래는 양효(—)이고 그 위 다섯 개는 음효(-- --)입니다. 한겨울(음)에 양 기운이 깃들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 동짓달은 다시 돌아온다, 즉 양 기운이 회복되는 달이라는 뜻이지요. 사물의 생장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그 전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물극필반(物極必反)이라 했지요.

고대부터 동서양 거의, 12월(양력)은 태양신의 부활을 축하하는 제의가 유행했습니다. 그 원시 제천의식을 교(郊)라 했고 서양에서는 크리스마스의 뿌리가 났다더군요. 봄날 제의는 사(社)였습니다. 땅(생식)의 신에게 지내는 제사였지요. 사에 모여 공동으로 의례를 올리는 것을 사회라 했습니다. 사회(社會)나 회사(會社)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다시, 동지 다음 날부터 밤(음)을 점차 짧아지고 낮을 길어집니다. 춘분(음력 3월)이 되면 밤과 낮 시간이 같아집니다. 괘(卦)괘 달입니다. 아래부터 5개 효는 양효이고, 맨 위에 달랑 음효가 남았습니다. 다음 달은 양의 기운으로 꽉 찹니다. 그 다음 달은 음이 하나 생겨납니다. 자연의 법칙성을 음과 양의 기운으로 풀이한 것이지요.

봄은 왜 남쪽에서 올까요. 지구의 남북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공전하기 때문입니다. 자전축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태양이 왼편에 있다 치면, 햇빛은 남반구에 더 많이 비

칩니다. 남반구는 여름이고 북반구는 겨울입니다. 지구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 태양 왼쪽에 위치합니다. 북반구에 햇빛이 더 비칩니다. 여름인 것이죠. 햇빛이 적도를 따라 오르락(북회귀선), 내리락(남회귀선)하는 것을 자연현상과 맞물려 1년을 나눈 것이 24절기입니다.

### 춘(春)은 생동하는 만물을 표현

춘천에 봄이 왔습니다. 춘천은 우리말로 봄(春) 시내(川)입니다. 왜 춘천이라 했을까요. 어떤 해석으로는 봄이 일찍 오는 고을이라 해서 그랬다는데, 춘천은 북쪽에 있는데, 글썩요.

우리 역사책인 '고려사'는 춘천의 지명을 깔끔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 (고려) 태조 23년(940)에 춘주(春州)로 하였다. 별호는 수춘(壽春)이며(성종이 정했다)... 소양강이 있다.' 현재의 춘천이 된 것은 조선 태종 때(1413)라고 합니다.

갑골문에 보이는 봄 춘(春) 글자는 초목 사이(林)에 해(日)가 있고, 싹(屮)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혹은 꽃봉오리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만물이 생동하고 온갖 조수가 짝을 짓고, 술로 풍요를 기원하는 때입니다. 춘(春)자에 사랑, 귀한 술이라는 또 다른 뜻이 있는 이유입니다.

물길을 뜻하는 한자는 여럿 있습니다. 고대에 하(河)는 황허(黃河)를, 강(江)은 창장(長江)을 특정해서 불렀습니다. 하와 강은 아주 큰 강입니다. 그 보다 작은 물길은 제수(濟水), 회수(淮水)해서, 수나 천(川)이라 했습니다.

당나라 대표 시인 이백의 고향이기도 한 쓰촨성은 4개의 강이 흘러 쓰촨(四川)이란 지명이 붙었다고 하네요. 창장의 상류니 물길이 좁았겠지요. 쓰촨성은 산세가 험해 가는 길이 하늘에 닿은 것보다 힘들다 했습니다. 그래서 옛 나라 이름을 붙여 '파촉 삼만리'라 했지요.

### 산과 강이 많아 춘색(春色) 넘치는 고장

춘천도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 계곡이 많습니다. 거기서 이어진 시내(川)도 여럿 흐르고요. 봄은 계곡에서 오지요. 얼음장은 햇살에 풀려 '쪼르륵 풍, 쪼르륵 풍' 흐르다 졸졸졸, 더 몸피를 불려 내를 이룹니다. 그리고 양의 기운을 땅에 전하고, 생명이 기지개를 펴니다. 땅은 양의 기운으로 온갖 움과 풀과 꽃을 피우지요.

예전 춘천의 봄은 어땠을까요. 개화기, 이 고장의 최고 지식인으로 민족잡지 '개벽'을 이끌었던 청오 차상찬 선생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두의 배꽃은 백설이 분분하고, 금병산



의 철쭉, 삼악산의 진달래, 청평산의 생강나무, 경춘가도의 벚꽃은 춘광(春光)을 자랑한다 했지요.

음 기운이 팍 차면 소양(昭陽)이 나타난다 했습니다. 소양강의 소양입니다. 소(昭)는 밝음이 나타나는 것이요. 양(陽)은 이미 회복된 양이 더욱 밝아짐을 뜻한 것이라 했습니다. 음 기운이 극에 달하는 달은 음력 10월(양력 11월)이고 음력 11월에는 양이 움튼다 했습니다. 한겨울에 봄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끝은 끝이면서 시작이니까요.

이렇듯 춘천은 산과 강이 많으니, 다른 고장보다 춘색(春色)을 일찍, 혹은 많이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혹은 1년 열두달 봄 같이 생동하는 삶을 영유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풀어 봅니다.

4월은 삼진날이 있는 달입니다. 음력으로 3월 3일, 양의 수(3)가 겹치니 봄이 난만할 때입니다. 우리 민요 유산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화란춘성(花爛春盛)하고 만화방창(萬化方暢)이라. 때 좋다 벗님네야 산천경개를 구경을 가세.' 꽃놀이 어떠신가요.



어록으로 보는

# 의암 류인석<sup>④</sup>

의암께서 남기신 글은 한문으로 56권 되는 방대한 양이다. 그중에 세 가지 글을 가려내어 의암께서 지녔던 생각을 엿보고, 그 정신을 맛보는 기회로 삼고자 이 글을 쓴다.



## 1.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

大眼(대안)  
活膂(활흉)  
硬脊(경척)  
健脚(건각)

의암 류인석 선생을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아는 것을 평생 토록 실천하여,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였기에 의암께서 남기신 말을 읽다 보면 어느새 감동을 받아 두 다리를 힘차게 딛고 허리를 곧게 세우며 어깨를 활짝 펴며 시선은 앞을 응시하게 된다. 의암께서 남긴 글 중에 ‘大眼(대안) 活膂(활흉) 硬脊(경척) 健脚(건각)’이라고 쓴 것이 있으니, 이것을 풀어보면 “눈을 크게 뜨고(大眼), 가슴을 활짝 펴고(活膂), 등뼈를 곧추세우고(硬脊), 튼튼한 다리로 서라(健脚)”는 뜻이다.

이 글을 보고 있노라면 의암께서 사내대장부다운 면모를 지녔음을 금방 알 수 있다. 심호흡을 하며 눈을 크게 뜨고, 가슴은 활짝 펴고 등을 곧게 세우고 튼튼한 다리로 땅을 내딛는 의암 모습이 절로 그려진다.

## 2. 세상을 향해 분발을 촉구하는 글

檄文(격문)  
충의를 분발하라

의암께서 1895년 12월 24일(음력) 영월에서 의병을 일으킨 여러 사람이 의병대장이 되어주기를 올면서 요청하자, 의암께서도 올면서 따랐다. 의병대장에 오른 의암께서 조정에 있는 관리에게 다음과 같은 격문을 보냈다.

“의리라는 것은 인간의 뜻과는 달리 스스로 바른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것이 죽음보다 욕되는 것도 있고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영예로운 것도 있습니다. 또 화(禍)와 복(福)이라는 것도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한 분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택한 자가 반드시 모두 죽는 것은 아니며, 삶을 피한 자가 반드시 모두 살지도 못합니다. <중략>

오늘부터 생(生)을 버리고 의(義)를 취하는 결단을 내리어 충의(忠義)를 분발하십시오. 분수에 따라 힘을 다하여 일편의 진정한 마음들을 굳게 먹고 용기를 내서 대의를 천하에 펼친다면, 어찌 공사(公私) 간에 큰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격문(檄文)은 다급하게 여러 사람에게 알리어 그것에 동조하도록 하는 글인데, 의암께서는 오로지 충의(忠義)를 분발할 것을 말씀하였다.



대한 13도의군 도총재 의암 류인석 순국 100주년 기념 향음례(추모제향)이 지난 3월 19일 의암 류인석 유적지 의열사에서 봉행됐다. 초헌관 이육재 춘천시부시장, 아헌관 이민찬 춘천교육장, 종헌관 류연수 고흥 류씨 춘천중친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은 초헌관으로 참석한 이육재 춘천시부시장)

### 3. 세상을 향해 알리는 글

## 通告文(통고문)

죽을 각오를 하면 살 수 있다

의암께서는 1896년 중국으로 망명하였다가 1907년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망명을 하였고,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제로 합병하기 바로 직전 13도의군 도총재로 등단하였다. 그때 대한제국 13도 2,000만 동포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보내었다.

“생각해 보면 왜적이 매우 강하여 약간의 의병으로는 반드시 적을 대항하여 이길 수 없다. <중략> 살려는 마음만 있다면 모두 죽을 것이나, 모두 죽을 곳에 있게 되면 함께 살 희망이 있다. <중략> 죽을 각오를 하면 살 수 있고 일도 성공하여 <중략> 원수 왜적을 물리쳐 멸하고 혼란을 일으킨 적들을 다 없애야만이 중흥과 태평의 즐거움을 누릴 것이니 이것이 미천한 나의 절대 소망이다.”

이러한 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에 합병되자 “비록 합병하였다고는 하나 2,000만 동포가 한마음으로 뭉쳐 죽을 각오로 왜적을 소멸해야 한다.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영원히 의병의 깃발을 굳게 잡을 뿐이다”라고 2,000만 동포에게 다시 통고하였다.

의암께서 남기신 말씀은 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내친다는 ‘위정척사(衛正斥邪)’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사상이 춘추대의(春秋大義)가 되며, 이는 의암께서 평생 실천한 강령이었고 좌표였다. 세 가지 글만으로 어찌 의암께서 남겨놓은 글을 대표할 수 있겠는가. 오로지 그 정신을 우리가 배우고 잊지 말아야 한다. 의암 류인석 순국 100주년이 되는 2015년을, 춘천정신을 확립하고 그 뿌리를 세우는 원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허준구 춘천문화원 사무국장



곡운구곡의 1곡인 방화계

## 철쭉의 웃음판 방화계

### 춘천의 옛 땅 사창리

사창리를 거쳐 철원으로 자주 다녔던 1990년대 중반엔 심하게 꼬불꼬불하다 라는 생각뿐이었다. 대관령을 화천에서 다시 만나는 기분이었다. 흔히 말하는 구절양장(九折羊腸)이 바로 여기였다. 지나칠 때마다 용담샘터에서 목을 축이곤 했다. 그때 물을 뿜어내는 거북이 뒤로 세워져 있는 곡운구곡에 대한 안내문을 보고 곡운구곡을 처음 알았다. 달리는 차창 너머로 보이던 바위들과 곳곳에 형성된 여울을 보면서 범상치 않은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곡운구곡이었다.

사창리의 옛 이름은 사탄(史呑)이다. '시룬' 또는 '실운(實雲)'으로도 불렸다. 그런데 김수증(金壽增)이 지금의 용담리에 은거하면서 지명을 곡운(谷雲)이라 바꾸었고, 이후 곡운이란 명칭이 대표적으로 쓰이게 되었다. 사창리를 포함한 사내면은 1950년대까지 춘천에 속했다가 화천군에 편입되었다. 춘천시와 사내면의 경계가 곡운구곡이 시작되는 방화계인 것은 편입되는 것이 못내 아쉬워서인지도 모르겠다.

### 김수증, 사창리로 향하다

김수증은 평강 현감에 임명되어 평강으로 가던 중, 사창리가 아름답다는 말을 듣게 된다. 그리고 현종 11년인 1670년에 지금의 화천군 사내면 용담1리에 땅을 마련하고 집을 짓기 시작했다.

오탄리를 출발한 김수증은 만월고개에서 멈췄다. 서쪽을 바라보니 산이 파도친다. 그 위로 하늘이 조그맣게 열려 있고, 산 틈새로 한 줄기 계곡이 보일 뿐이다. 고개를 내려와 계곡을 옆에 끼고 계속 걷는다. 왼쪽으로 크게 돈 후, 다시 오른쪽으로 더 크게 돌았다. 10여 리를 걸은 것 같다. 시내를 따라 돌과 숲 속을 뚫고 가니 크고 작은 돌은 울퉁불퉁하고, 이어진 봉우리가 하늘을 가리고 있다. 길은 다한 듯하다가 다시 이어지더니 깊고 고요한 계곡이 길을 막는다. 여기저기 솟은 바위 사이로 날렵하게 빠져나가던 여울은 이리저리 부딪힐 때마다 하얗게 계곡을 흔든다. 정신을 차리고 자세히 보니 물은 갈 길을 재촉하는데, 철쭉은 바위에 물감을 풀은 듯



방화계 암각자



한가롭게 붉고, 큼지막하다는 표현이 초라한 너럭바위는 큰 배처럼 정박해 있다. 바위에 앉은 김수증은 배를 탄 나그네. 붉은 철쭉에 마음을 뺏겨 이곳을 방화계(榜花溪)라 부르고, 아홉 곳의 승경 중 첫 번째로 삼았다.

**시인들, 붉은 철쭉 흐드러진 방화계를 노래하다**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은 험하다. 여울 옆 넓적한 바위에 깨어진 글자가 보인다. 1850년대 춘천부사로 있던 이용은(李容殷)이 새긴 '방화계(榜花溪)'와 자신의 이름이다. 축대를 쌓기 위해 바위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한 차례 훼손되고, 피서객이 피운 불에 또 한 번 파손되어 일부만 남아있다. 여울 건너 바위에도 글씨가 남아 있다. 바위에 글씨를 새긴 곳은 절경이면서, 자리 잡고 앉아서 땀을 식히기 좋은 곳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 곡운구곡을 연 김수증은 방화계를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숲 깊고 길 끊겨 찾는 이 드문데**

/ 林深路絕來人少

**어디에 신선 있는지 개는 짓고 연기 오르네**

/ 何處仙家有吠煙

1823년 정약용은 그물처럼 촘촘하게 꽃이 핀 것을 보고 '망화계(網花溪)'로 고치고, 흥에 겨워 시를 한 수 짓는다.

**일곡이라, 시냇가에 배를 매지 마라**

/ 一曲溪頭莫繫船

**흐드러지게 꽃 핀 데서 힘차게 내달릴 수 있네**

/ 網花纔肯放棄川

김수증과 정약용은 방화계에서 세 가지에 주목하였다. 바로 바위와 여울과 꽃이다. 그동안 간과하였던 것이 여울이었다. 여울의 모습은 정약용의 표현이 세밀하다. 세 개의 여울과 두 개의 못으로 이루어진 방화계의 진면목은 김수증과 정약용의 시선을 빌리자 보이기 시작했다. 이들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의 수많은 화가와 시인들은 이곳을 찾아 그림과 시를 남겼다. 조세걸은 김수증의 부탁으로 곡운구곡도를 완성하였고, 겸재 정선도 이곳에 들러 그림을 남겼다. 시인들의 시는 헤아릴 수 없다. 류인석도 의병활동 중에 이곳을 찾아 울분을 노래했다.

철쭉과 집채보다도 더 큰 바위, 그리고 그 사이로 흐르는 여울은 방화계의 자랑이다. 철쭉이 흐드러지게 피는 봄에 바위에 앉아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신선이 된다. 곡운구곡의 여행은 신선이 되어 선경(仙境)으로 가는 여행이다. 철쭉 흐드러지게 피면 만사를 제쳐놓고 선인들의 흥취를 느끼러 달려가리라.

권혁진 강원한문고전연구소장



## 산골 농부의 삶

“  
봄이면  
시방서부텀  
두엄을 퍼내요  
”

# 가리산 품에 기대 살던 열한 살의 ‘마쓰바리에이깡’. 어느 날 누군가 와서 책을 찢더니 해방이 됐다고 말했다. 1·4후퇴 때 식구 열다섯 중 일곱을 잃고 충주 ‘달래깡’까지 피난을 갔다. 아버지를 잃었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다. 열아홉 되던 해 외갓집이 있던 품걸리로 향했고 고개를 세 개나 넘어 재경골에 집을 풀었다. 화전밭을 일구며 산 세월. 봄이 되면 두엄을 퍼내고 땔나무를 마련했다. 멧돼지에 죽을 뻔한 적도 있었다. 겨울밤이면 동네 노인들은 ‘영환’을 불러내 이야기책을 읽게 했다. 그냥 보낼 수 없다며 술과 음식을 종종 내줬다. 산골 ‘전기수’<sup>1</sup>였다. 올해로 여든하나. 아내는 올 초 무릎 수술을 받아 제대로 걸을 수 없다. 성한 곳 하나 없이 ‘달그락’대는 뼈마디. 그래도 산골농부의 머릿속은 온통 ‘두엄’과 ‘낭구’ 걱정으로 가득하 기만 하다. 봄이면 늘 있던 일이었을 테다. **봄내편집실**



### “두촌서 고개 서이 넘어 왔어요”

내가 태어난 곳은 흥천 두촌이야요. 두촌서 여기로 농사지으려고 왔죠. 충주 달래깡<sup>2</sup>으로 피난 갔다 열아홉에 들어와서 어디 안 가고 여기서만 농사짓고 살았어요. 두촌 평내서 고개 넘어 걸어왔어요. 무쇠말재하고 텃골고개, 늘목고개<sup>3</sup>를. 이삿짐을 등받이 열 개로 해왔어요. 처음엔 저 위 재경골에 살았어요. 지금은 한 집 있는데 그때는 스물일곱 집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집 위에는 서낭골<sup>4</sup>이 있는데 그 전엔 거기 개고기 먹고는 못 당겼어요. 부정을 피워서 소하고 병이 나요. 가다가 까무러치기도 하고 병원 가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우리 삼촌 하나는 죽었는데요 뭐. 개 먹고는 산에 못 들어가요.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시방은 개고기를 먹고 막 땡기지 그전엔 절대 거기 개고기 먹고는 지나당기지 못했어요. 땡가 부정이 나더러라고요. 무쇠 말도 해다 났는데 그거는 누가 훔쳐갔어요. 서낭신 말 타고 다니라고 마똥기네 대장간에서 쳐다 논 건데.

1. 조선 후기에 청중을 앞에 두고 소설을 구연하던 전문적인 이야기꾼을 지칭하는 말. 즉 소설을 읽고자 하지만 문자 해독력이 없어서 작품을 향유하지 못하는 청중을 대상으로 소설을 낭독해주고 일정한 대가를 얻는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이야기 구연자를 일컬었다.
2. 속리산에서 발원한 달래(달천)강을 말한다. 좁지도 깊지도 않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포근한 강으로 표현되곤 한다. 충주 탄금대 앞이 달래강과 남한강의 합수 지점.
3. 가리산 정상들 사이에 두고 흥천 두촌 평내마을과 춘천 동면 품걸리를 잇는 고갯길이다. 품걸리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상품곡리 일부와 말걸리, 판향리를 병합해 품곡리의 ‘품’자와 말걸리의 ‘傑’자를 따서 품걸리가 되었다.
4. 150년 이상된 소나무 7그루가 북두칠성 모양으로 심어져있어 칠성목이라고도 한다. 품걸리 현 이장의 고조부 이종실이 심었다고 전해진다. 40여년 전만 해도 칠성목 가운데 서낭당이 있어 봄·가을로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5. 지금 6. 구멍이를 파서 풀이나 짚, 낙엽, 쓰레기와 동물의 배설물 따위를 모아 썩혀 만든 거름.
7. 나무 8. 옥수수 강원도 방언.



### “이야기책 들을라구 저녁 먹구 불러요”

일은 아침에 보통 새벽 4시면 다 일어나서 시작을 하죠. 여기 다 화전밭일 땐 콩 팔이 서울로 4,000가마씩 나갔어요. 135가구가 있었는데 화전정리가 되면서 45가구가 나갔죠. 그때 보상액이 12만2,000원, 소 한 마리 1만5,000원, 송아지 한 마리에 3,000원, 품 한 개 값이 150원, 옥수수 한 말이 150원이었어요. 둘이 가 하루 일하면 옥수수 두 말씩 줬어요.

겨울만 되면 노인들이 얘기 자꾸 들려달라 그래요. 옛날 소설 같은 거 들을라구 저녁 먹구 불러요. 흥부전 춘향전 심청전 삼국지 같은 것도 다 읽었고, 그거 듣느라고 한느이서 대여섯까지 모여 있어요. 두 노인네만 사는 집에서 일부러 데릴러 와요. 저녁 먹고 7시 반 8시에 가서 9시 반, 10시까지 있다 와요. 끝나면 술을 한잔 주거나 음식을 채려서 주죠. 이쪽에 노인네들은 이름자도 못 쓰는 노인네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불렀어요.



### 봄 되면 두엄 내고 ‘낭구’ 하고

봄이면 시방<sup>5</sup>서부터 두엄<sup>6</sup>을 퍼내야 돼요. 3월 초부터 4, 5월까지. 또 거기다가 일 년 땀 낭구<sup>7</sup>를 춘분(3월21일)까지 해요.

입하(5월 6일) 5일 전에 밭을 갈고 소만(5월 21일)에 씨를 넣어요. 망종(6월 6일) 끝까지. 먼저 감자 심구 그다음에 옥수수 심구. 이제 한 달 있으면 감자 심을 거예요. 그다음에 콩 심구 망종 때 팥 심구. 논농사는 소만 즈음에 논갈을 꺾어요. 갈순 짤라서 거름을 하죠.

논 퇴비쥬. 참나무 잎사귀를 갈이라고 해요 가랑잎. 그걸 갈 꺾는다고 해요. 그걸 눈에 태워서 퇴비를 해요. 소만 때 갈을 꺾어서 물을 대고 모를 심는 거예요. 하지(6월 22일)때까지 모내기를 하는 거예요.

뽕씨까지 다 뿌리고 한여름엔 김매야죠. 비가 오면 논일하고 맑은 날이면 밭일해야죠. 비가 오면 사흘 지나서 일해야지 바로 일하면 질어서 안돼요.

가을건이는 9월이면 옥시기<sup>8</sup> 하고 10월 부터 콩 팥 12월까지 말려서 떨고, 시방 기계로 하지만 그때는 도리개로 다 했어요. 아주머니 고생 너무 많이 해서 수술했어요. 나도 관절이 이제 다 빠졌어. 그래서 쇠로 다 묶어놨어요. 도끼로 짜른 거 같애 양쪽 다. 엑스레이 찍으면 이제 고만 당기라는 거야. 근데 먹고살기 위해서 어떻게 안 멩겨요. 이제 곧 땀나무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시작해야 돼요.

## 배움에 나이가 있나요?

도내 최초 개설된 남춘천 방통중 입학식 현장에서 만난 뜨거운 향학열



3월 7일 오전 10시 남춘천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교실. 소년 시절 못 배운 한을 씻기라도 하려는 듯, 새로운 학교생활에 대한 호기심과 배우고자 하는 열정의 눈빛은 소년소녀와 다르지 않았다.

강원도에서 처음 개설된 방송통신중학교 개교식 겸 입학식이 있던 날, 어르신 입학생들로 이루어진 교실 안에는 일찌감치 자리가 메워졌다. 부끄러워할 것이란 예상은 빗나갔다.

평균연령 61.3세라고 하기엔 어울리지 않게 하나같이 설렘과 호기심과 열정으로 교실 안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소년소녀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서로 어색한 분위기가 아닌 조금이라도 낮익은 듯싶으면 덥석 손을 잡으며 반가워하는 모습과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이 달랐을 뿐이다.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은 소년소녀보다 진지하고 경건하기까지 했다. 그토록 갈망하던 배움의 길이

열렸다는 기쁨과 안도감 때문인지 하나같이 표정이 밝고 상기된 모습에서 노심의 티를 찾을 수가 없었다.

처음 중학교 과정에 입학한 신입생은 남자 18명, 여자 72명 등 모두 90명. 최고령자는 83세 이다.

이 들은 하나같이 때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배움의 길을 열어준 정부 정책에 감사 하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최승명 방통중학교장은 “나이나 환경을 떠나서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노력에 아낌없는 찬사의 박수와 격려를 보낸다”면서 “그 열정으로 중학교 과정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까지 해내는 승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사를 했다.

신입생을 대표한 83세의 최고령 정갑녀 어르신은 입학 소감에서 “배움에 허기진 상처를 남몰래 숨긴 채 70해 세월을 기다려 왔다”면서 “소년소녀로 돌아가서 중단 없는 배움에 열정을 바칠 것”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단위에 선 김옥수 어르신은 “1959년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56년의 세월을 중학교 가지 못한 한을 품고 살아 왔다”며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설렘으로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도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해 박수를 받았다.

이날 입학한 방송통신중학교 신입생은 3년에 걸쳐 중학교 정을 공부하게 된다.

김영일 명예시민기자

## 혼자 사는 홀몸노인에게 맞춤 서비스 제공

4월 말까지 조사원 방문, 주거·경제·건강상태 등 파악

혼자 사는 노인 실정에 맞는 맞춤 서비스가 제공된다.

춘천시는 홀몸(독거)노인 인구가 늘고 있는 데 따라 개별 상황을 일일이 파악, 종합적인 노인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시는 정확한 내용 파악을 위해 4월30일까지 전체 독거노인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65세 이상 실제 홀몸(독거)노인 6,670여명이다.

조사원이 각 가정을 방문해 주거, 경제, 건강상태, 현재 지원서비스 등을 파악한다.

시는 기초자료를 토대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에게는 주 1회 가정 방문, 수시로 전화 등을 통한 간접 파악, 가사 지원 등이 제공되고 치매, 노환 등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활동 감지, 가스, 화재 감지 등의 장비를 설치해 수시로 상황을 파악한 후 조치한다. <경로장애인과 ☎250-3644>



## 함께하는 음악 나누는 즐거움 춘천청소년 팝스 앙상블

초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35명으로 구성  
매년 찾아가는 공연으로 재능기부



‘진정한 음악은 즐기면서 해야 한다’

3월14일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성골름반의 집에서 어르신들은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지난해에 이어 춘천청소년 팝스 앙상블(단장 방유정)이 찾아와 1시간 동안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며 병으로 힘든 어르신들에게 잠시나마 위로가 됐다.

지난 2008년 창단한 춘천청소년 팝스앙상블은 퇴계동 5단지 내 솔리스트음악학원에서 인연을 맺은 학생들로 구성됐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다양한 나잇대 35명으로 구성됐다. 이름처럼 사회구성원들과 함께하는 음악, 나누는 즐거움을 만들어 가고 있다.

강성현 음악감독은 “어린 학생들이 어려운 이웃과 함께 음악을 즐기다 더 큰 재목으로 성장했을 때 많은 사람과 공감하는 음악인으로 남아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매주 1회 정기연습을 통해 실력을 키우고 있는 앙상블은 각종 콩쿨 입상은 물론 매년 춘천시립복지원, 국립춘천정신병원 등 찾아가는 공연으로 재능기부를 실천하고 있다.

## 연극할 사람 여기 여기 붙어라!

극단 연극사회 청소년 연극교실

극단 연극사회(대표 윤승균)는 춘천시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토요 프로그램 연극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

연극교실은 3~12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남춘천역 부근의 극단 연습실에서 펼쳐진다. 연극놀이를 시작으로 스트레칭, 발성 등의 신체훈련, 연극개론 등의 이론수업, 체험활동 등이 진행된다.

11월 30일에는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참가자들이 직접 쓴 대본을 토대로 한 편의 연극을 무대에 올릴 계획도 갖고 있다. 주 강사는 엄윤채, 윤승균 등 극단 연극사회의 주요 배우들. 참가 자격요건은 따로 없다.

나를 발견하고, 친구와 함께 연극을 즐길 수 있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참가비는 무료.

문의 010-5370-7678.





# 금빛 발차기로 올림픽 출전 꿈 이룰게요

## 73kg 이하 우승, 국가대표 선발

춘천시청 태권도팀  
오혜리



여성 태권도 선수 20대 후반이면 은퇴를 고려하는 시기. 하지만 오혜리(28·춘천시청 태권도팀)는 새로운 꿈을 위해 도전장을 내밀었다. ‘하면 된다’는 불굴의 의지로 국가대표로 선발된 것.

오혜리는 지난 2월6일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막을 내린 2015년 국가대표 최종선발전 여자부 73kg 이하급 결승에서 서울시청 이인종을 역전으로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경기 마지막인 3회전까지 6대8로 뒤지며 패색이 짙었지만 종료를 1초 앞두고 몸을 돌려 상대의 머리를 향해 내려차기를 꽂아 넣어 10대8 짜릿한 역전 우승으로 태극마크를 달았다.

국가대표로 선발된 오혜리는 오는 5월 러시아 첼라빈스키에서 열리는 2015년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 출전권도 획득했다. 태릉선수촌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오혜리 선수는 “올림픽 출전이 꿈”이라며 “선수 생활 중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오로지 운동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강릉 관동중, 강원체고와 한국체대를 졸업한 오혜리는 2014년 1월 춘천시청 태권도팀에 입단해 US오픈 국제태권도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금메달 3개, 동메달 2개와 전국대회 금메달 2개, 동메달 1개 등을 따내는 등 춘천시청의 간판 선수로 각인되고 있다. 또한 세계랭킹 14위에 들 정도로 정상급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



## 철전사거리 춘천차량등록사업소 입구 무분별하게 세워진 각종 간판들



철전사거리에서 춘천차량등록사업소 입구 뒷골목에 관공서 안내간판을 비롯해 상점들의 간판이 무분별하게 세워져 있어 보는 사람들에게 산만한 느낌을 주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곳을 찾은 한 시민은 “행정기관과 각종 상점 안내간판들이 여기저기에 세워져 있어 식별력이 떨어지고 외관상으로도 좋지 않아 고정계시판을 설치하면 좋을 것”같다고 했다.

황치우 명예시민기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총 1,000인 음악회  
**1,000명의 연주자를  
모집합니다!**

# 총 1,000인 음악회

## 2015 Chuncheon 1,000인 음악회

**2015. 7. 11**

**토요일 오후 5시**

**춘천호반체육관**

**접수 오후 1시**

**리허설 오후 2시, 보면대지참**

### 참가대상

춘천에 거주하는 음악애호가(학생 및 시민) 악기 연주 수준과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참여 할 수 있음, 춘천을 찾는 관광객 포함

### 참가악기

관악기, 현악기, 하모니카, 오카리나, 리코더, 아코디언 등 멜로디 가능한 악기

### 참가방법 및 접수처

다음카페(춘천시음악협회 검색)에서 홈페이지 신청란에 신청  
TEL : 010-5644-9557 / [jspsory@hanmail.net](mailto:jspsory@hanmail.net)

### 접수기간

2015년 4월 1일(수) ~ 18일(토)까지 / 선착순 1,000명

### 참가자 혜택

가. 년 중 본 협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음악행사에 초대  
나. 행사참가 연주회 기념 티셔츠 제공  
다. 초, 중, 고 학생 봉사시간 (4시간) 확인증 발부

### 합동연주곡

누구나 연주 가능하게 편곡한 6곡을 다음카페 (춘천시음악협회 검색) 악기별 조성에 맞게 다운받아 연습후 연주, 악보책은 6월달 배부함. (C조, Bb조, Eb조 낮은음표 악보)

### 연습일정

춘천시음악협회 홈페이지 참고(추후 홈페이지에 기재)  
4월부터 동호회 및 팀별 30회 연습실시

※타지역 관광객은 참가신청시 타지역이란 표시할것.  
당일 리허설 참석하고 연주함.


※시민참여형 축제기획 단원 모집

주최  춘천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춘천시음악협회

 춘천시문화재단  
Chuncheon Cultural Foundation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The Korean Cultural & Arts Centers Association

# “꿈과 이야기 가득”

효자동 담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상시 운영  
인형극 감상부터 강연까지 풍성

효자동 낭만골목 초입에 자리한 소박하고 예쁜 담작은도서관, 2만 6,300여 권의 장서를 갖춘 3층 규모의 도서관은 구석구석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아늑하게 꾸며졌다. 추억 속 동네 만화방같이 편안해 우리 아이들이 언제나 들러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곳. 이곳에선 누구나 와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일 년 내내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아기와 부모가 함께하는 ‘북스타트’는 책을 중심으로 함께 이야기하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사랑을 키워가는 육아 지원 프로그램(4.18(토) 11:30). ‘예비북스타트’는 임산부 대상 프로그램, 그림책을 보며 뱃속의 아이와 소통하고 장난감도 만들어 보는 시간이다(4.28(화) 14:00). ‘주제가 있는 책이야기’는 옛이야기, 고전소설, 공포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와 장르의 문학작품을 읽고 관련 책 놀이를 해보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열린다.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토요 이야기극장’은 매주 토요일에 펼쳐진다. 첫째 주 오후 2시엔 도서관 특성화 자료를 이용해 스토리텔링을 하고, 둘째 주 오



전 11시 30분에 발도르프 인형극을 감상할 수 있다. 셋째 주 오후 2시는 신착자료를 만날 수 있고 ‘판도라의 지식상자’라는 주제로 마련되는 넷째 주 오후 2시엔 주제 관련 책과 영상자료를 통해 아이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준다. 자녀들 교육에 관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행복한 삶을 함께 모색해보는 ‘자녀교육강좌’도 매달 둘째 주 금요일 열린다. 4월엔 10일 오후 7시 정승훈 강사가 ‘학원 사교육의 불편한 진실과 사교육의 폐해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강의한다.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56-6363 한영숙 명예시민기자

## 밤 10시까지 책 빌려드립니다

춘천시립도서관 야간 개관



회사원 한선영씨는 주중에도 퇴근 후 시립도서관을 종종 찾는다. 밤 10시까지 대출이 가능한 운영시간 덕분이다. “집 근처에도 도서관이 있지만 시립도서관 본관은 퇴근이 늦어져도 늦은 밤까지 책을 빌릴 수 있어 이곳을 자주 찾는다”는 그다.

2007년부터 밤 10시까지 제1자료실 야간 개관을 시행해 온 춘천시립도서관의 지난해 야간 대출 이용자수는 약 1만 3,000명. 한씨와 같이 근무로 인해 주중 낮에 도서관을 찾기 어려운 직장인들이 주로 이용해 오고 있다. 제1자료실뿐만 아니라 열람실 또한 밤11시까지 운영해 늦은 시간까지 도서관 이용이 가능하다.

☎245-5102

## 소설가를 꿈꾸시나요

제22회 김유정 기억하기 전국문예작품 공모

(사)김유정기념사업회에서는 한국 단편문학의 대표적 작가인 소설가 김유정의 향토성과 해학 등 격조 높은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한 문예공모전을 실시한다. 전국의 중학생과 고등학생, 대학·일반인을 대상으로 글제는 김유정의 작품 제목 중에서 택일해야 한다. 시는 2편 이상, 산문은 중등부 A4 용지 2~2.5매 분량, 고등부와 대학·일반부는 A4 용지 3~3.5매 분량이다. 내용은 자유.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4월 30일(목) 마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조

(www.kimyoujeong.org). ☎261-4650

이종현 명예시민기자

# 극장에서의 달콤한 낮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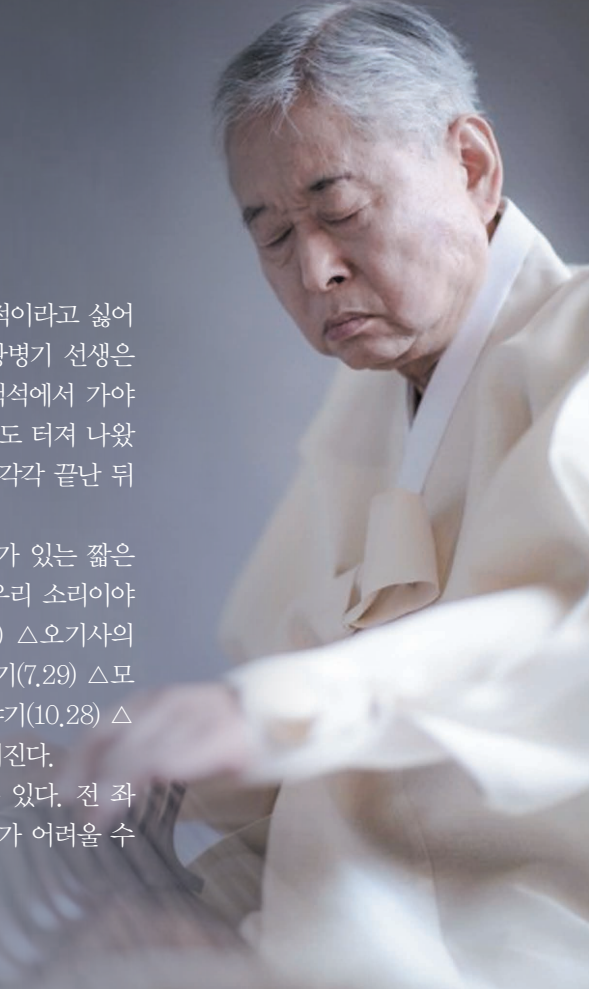
축제극장 몸짓 기획공연 “라 시에스타”

“한국 사람들은 길고 짧은 걸 좋아해요. 뒤집기도 그렇고, 똑같이 흐르면 기계적이라고 싫어 하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리듬을 ‘장단’이라고 합니다” 여든의 가야금 명인 황병기 선생은 느릿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한국인의 음악성을 설명한다. 공연이 모두 끝나고 객석에서 가야금 연주에 장구 장단이 있는 이유를 묻자 나온 대답이다. 재미있는 설명에는 웃음도 터져 나왔다. 직접 연주한 ‘침향무’와 제자 안나래씨가 연주한 ‘밤의 소리’, ‘시계탑’ 연주가 각각 끝난 뒤에는 작곡하게 된 배경과 그의 인생을 차분히 들려주기도 했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라 시에스타(La Siesta)’는 점심시간을 활용해 이야기가 있는 짧은 공연 형식으로 선보이는 춘천시문화재단의 대표적인 공연브랜드. 2월 황병기의 우리 소리이야기를 시작으로 △이원국의 발레이야기(3.25) △반도네온과 만난 마임이야기(4.29) △오기사의 여행이야기(5.27) △오페라가 만난 여자이야기(6.24) △몸짓으로 물드는 여름이야기(7.29) △모던다락방의 작은이야기(8.26) △양성원의 첼로이야기(9.30) △박종훈의 피아노이야기(10.28) △가을 솔로이스츠의 음악이야기(11.25) △마음으로 듣는 엄마이야기(12.15)가 이어진다.

매일 마지막 주 수요일 낮 12시, 축제극장 몸짓에서 한낮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전 좌석 1만원.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로 50% 할인.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좌석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다.

예약문의 259-5831



## 춘천시립교향악단 ‘2015 교향악축제’ 참가

3년만에 교향악축제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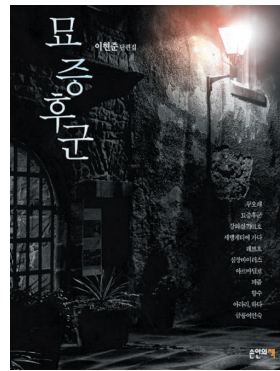
춘천시립교향악단이 3년 만에 교향악축제에 참가한다.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에 브람스의 비극적 서곡,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이경선 서울대 교수협연),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을 선보인다.

국내 최고의 클래식 음악축제로 알려진 교향악축제에 올해 전국 18개 교향악단 참가. 4월 12일(일) 오후 5시, 교향악단 통해 예매 시 R석 2만원 S석 1만8,000원. ☎ 259-5876



## ‘묘중후군’ 이현준의 첫 소설집

작품 배경 한림대 · 봉의산 담겨



우두동에 거주하며 지역대학에서 강사로 활동하는 소설가 이현준의 첫 단편집 ‘묘중후군’이 3월 출간됐다.

표제이자 국내 굴지의 온라인 서점이 진행한 제1회 K-오서 어워드 당선작이기도 한 ‘묘중후군’에는 2005년 평화신문 신춘문에 당선작인 ‘향수’, 자전적 소설 ‘금릉여인숙’ 등 9개의 단편과 2개의 엽편(짧은 소설) 등 총 11편이 수록됐다.

소설가 전상국은 추천사에서 “그의 소설 속 등장인물들은 저마다 짙어진 삶의 트라우마로 인해 길 아닌 길 위에서 비틀 거린다. 작가는 이런 이등 인생들의 세상살이 그 뼈뺀 행색을 시니컬하면서도 간결 탄실한 문체를 통해 실감 나게 그려내고 있다”고 말했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의 소설엔 모교인 한림대를 비롯, 춘천 곳곳이 담겨있다.

손안의 책, 319쪽, 1만2,000원.



### 갤러리카페 고마리 '들꽃자수와 유화展'

서양화가 임영옥과 자수작가 김예진의 '들꽃자수와 유화展'이 갤러리카페 고마리(우묵길 73, KBS 춘천방송총국 건너편)에서 열리고 있다. 부제는 그녀들의 봄빛 속으로. 작가와의 만남도 준비된다. 임영옥(3/28(토) 4/1(수) 15시), 김예진(3/25(수) 4/4(토) 15시). 전시는 4.5(일)까지. ☎242-2669

### 농민화가 길종갑의 '소양팔경展'

강원대 후문 맞은편 골목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빨'에서 농민화가 길종갑의 그림 전시가 열리고 있다. 지난해 '한시를 품다展'을 통해 첫선을 보인 소양8경을 중심으로 춘천의 풍경을 화폭에 담았다. 신작 포함 17점 전시. 4,9(목)까지. ☎251-8338 함혜인 명예시민기자



### 이상원 미술관 '버려진 것들에 대한 경의展'

지난 10월 사북면 지암리 화악산 자락에 개관한 이상원미술관의 개관전 '버려진 것들에 대한 경의'가 연장 전시 중이다. 전시 작품은 이상원 화백의 1977년부터 2013년까지의 회화 60여점. 4. 19까지. 4. 22부터는 회화중심의 10년의 컬렉션이 전시될 예정. 10시~18시(매포 마감 17시) 매주 월요일 휴관 성인 6,000원 학생 4,000원(춘천시민 할인) ☎255-9001

### 갤러리 소로 개관전 '예술가의 살아남기展'

소양로성당 옆 봉현선원(주지 현진 스님)이 '갤러리 소로' 개관전을 갖는다. 시작은 조각가 김동욱의 작품 50여점. '예술가의 살아남기'란 제목에 '장식과 쓰임 소소한 풍경전'이란 부제를 달았다. 4.20(월)까지. 010-5363-8102

### 춘천들꽃수목연구회 작품전시회

춘천들꽃수목연구회(회장 문용기)가 열 두 번째 작품 전시회를 갖는다. 연구회는 들꽃, 수석, 나무를 사랑하고 즐기며 보다 생활에 가까이하고자 분경, 분재, 석·목부작을 연구하는 모임으로 현재 30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50여점 이상을 선보일 이번 전시는 4.23(목)부터

27(월)일까지 KBS 1층 로비에서 열린다.

[cafe.daum.net/ccdsm](http://cafe.daum.net/ccdsm)

### 갤러리 4F '사이전'

중앙로 아식스 건물 3, 4층에 위치한 갤러리 4F에서 마련한 '사이전'은 춘천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가 6인의 기획전이다. 백윤기, 서숙희, 안성환, 이희용, 김영훈, 류재림 참여. 4.4 부터 4.27까지. ☎256-1515



### 일렉트로닉 라이브퍼포먼스 '비트빨'

복합문화공간 '빨'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마다 공연을 한다. 3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공연은 일렉트로닉 라이브 퍼포먼스인 '비트빨-ATTACK DK in BBal'. ATTACK DK(어택 디케이)는 두 명으로 구성된 DJ & Producer 팀. 3.28(토) 오후 8시. 1만원(음료 1잔 포함). ☎251-8338

### 춘천시립합창단 모닝콘서트 '휴가다'

지난해 봄, 가을에 선보인 '휴가다'가 2015년을 맞이해 4월 3일(금) 오전 11시 춘천문화예술회관 1층 로비에서 도니체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으로 모닝콘서트를 갖는다. '남몰래 흐르는 눈물' 등 오페라 속 아리아를 갈라 콘서트 형식으로 들을 수 있다. 다과 포함 5,000원. 80석 선착순. 전화로만 예약 가능. ☎259-5874



### 연극 <민들레 바람되어>

배우 조재현과 임호가 안중기역에 더블캐스팅되어 화제가 된 연극 '민들레 바람되어'가 4월 7, 8일 춘천문화예술회관 무대에 오른다. 아내를 일찍 여윈 남편의 이야기. 박춘근 극본에 극단 죽죽(竹竹) 대표인 김낙형씨가 연출을 맡았다. 러닝타임 90분. 4.7(화) 19:30 조재현, 4.8(수) 오후 3시·7시 30분 임호. <저녁공연> R석 3만원 S석 2만원 A\_1만원, <낮공연> 전석 2만원. ☎259-5831

## 연극제 '보헤미안', 마임축제 '깨비' 모집

춘천국제연극제(5.9-16)와 춘천마임축제(5.24-31)가 축제 자원활동가를 모집한다. 축제를 사랑하고 즐길 줄 아는 청춘이면 누구나. 축제기간 내내 활동 가능한 자를 우선 선발한다. 공연팀, 홍보마케팅팀, 운영팀, 기술팀, 통역팀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연극제 [www.citf.or.kr](http://www.citf.or.kr) 241-4345, 마임축제 [www.mimefestival.com](http://www.mimefestival.com) ☎244-6801

### 벼룩 시장

## '김유정역 재미난 장터'

춘천지역협동조합협의회 준비모임에서 3월 21일부터 매주 토요일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펼치는 벼룩시장. 각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제품을 비롯해 지역농산물판매, 생태공예, 도자기공예 등의 체험프로그램 및 다양한 먹거리 장터와 문화공연이 있을 예정. 장소는 금병의숙터 가기 전 갤러리카페 봄빛. ☎264-2636

## 감성마켓 비블로의 '런치타임 프리마켓'

조운동주민센터 부근에 위치한 감성마켓 비블로에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낮 12시부터 4시간 동안 '런치타임 프리마켓'을 연다. 예술품 또는 손수 만든 것, 건강하거나 특별한 먹을거리, 직접 키운 농산물과 화초, 중고용품 또는 책, 친환경 리사이클 제품이 그 대상. 3.27/4.24 070-7536-3987

### 여행 강좌

## 생강나무꽃 향기 그윽한 봄내길 걷기여행

봄내길 걷기여행이 석파령에서 봄을 맞이한다. (사)문화커뮤니티 금토는 4월 11일(토) 석파령너미길 걷기여행을 마련했다. 당림초등학교에서 시작해 예현병원→석파령→덕두원→(버스 이동)→수레너미→신승겸묘역까지 걷는 코스. 알싸한 생강나무꽃 향기 가득한 숲길이다. 축제극장 몸짓 주차장 오전 9시 30분 출발. 점심도시락을 챙겨야 한다. 1만원 예약필수 ☎251-9363

## 커뮤니티카페 '쿵박스' 4월 강좌

예비사회적기업 (주)소박한풍경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 카페 쿵박스에서 마련한 4월 강좌이다. △딸기 컵케이크 만들기(4.11.14시/8,000원/유치원·초등학생) △머그

컵 카네이션 핸드페인팅(4.26.15시/1만5,000원/유아 외 누구나) △창의력 종이접기(매주 화.16시/일.14시/회당 3,000원/유치원생·초등저학년) △취미로 배우는 커피강좌(매주 수.13시/회당6천원/성인) 거두리 동춘천농협 부근 [coop-box.net](http://coop-box.net) 사전 신청 ☎256-0764

## 풍물놀이때 땅울림 태평소 강좌

전통예술 공연단체 풍물놀이때 땅울림(대표 최미선)은 호적, 날라리로도 불리우는 태평소 예술강좌를 마련했다.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11월까지 기초반과 심화학습반으로 나누어 강좌가 열린다. 아리랑, 풍년가, 강원도 메나리조 등을 배울 수 있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남부시장 2층 땅울림 연습실. 무료 강좌. 010-4795-9837

이종현 명예시민기자



## 춘천문화원·(사)춘천역사문화연구회 시민강좌 개설

춘천의 역사와 문화를 다루는 시민강좌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춘천문화원 학이강의실에서 열린다. △춘천의 선사문화(오강원 3.23)를 시작으로 △춘천의병(정재경 4.27) △춘천의 역사 인물(금경숙 5.25) △춘천의 근대역사(신학수 6.22) △춘천의 지리문화(이상현 7.27) △춘천의 불교유적(지현병 9.28) △춘천의 비지정유적(홍성익 10.26) △춘천의 기행문학(권혁진 11.23)이 이어진다. 매월 넷째 주 월요일 오후 7시~9시. ☎254-5105

## 최돈선 시인과 함께하는 시 창작교실

여우컴퍼니가 주최하는 '최돈선 시인과 함께하는 시 창작교실'이 4월 11일부터 6월 27일까지 석 달간 춘천교육문화관에서 열린다. 매월 둘째·넷째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권혁소, 최준, 김정수, 신동호, 전윤호, 이상문 시인의 특강도 마련된다. 9월에는 시화전과 시낭송도 갖는다. 5만원. ☎241-1740 / 010-9818-1740

2015  
CHUNCHEON

# TOP BAND

## FESTIVAL

2015 .05 .01 ~ 2015 .05 .03  
( FRI. SAT. SUN )

춘천시 삼천동 392

밴드의, 밴드에 의한, 밴드를 위한,  
단 하나의 페스티벌 !!

### 1ST LINE UP



### 2ST LINE UP

갤럭시익스프레스 · 포스트패닉 · 악통 ·  
피콕 · 일락 · 나티 · 애니악 · CLUB505

www.espenter.com

● 단체 및 대학생 할인 기획사 문의: 070 - 8886 - 9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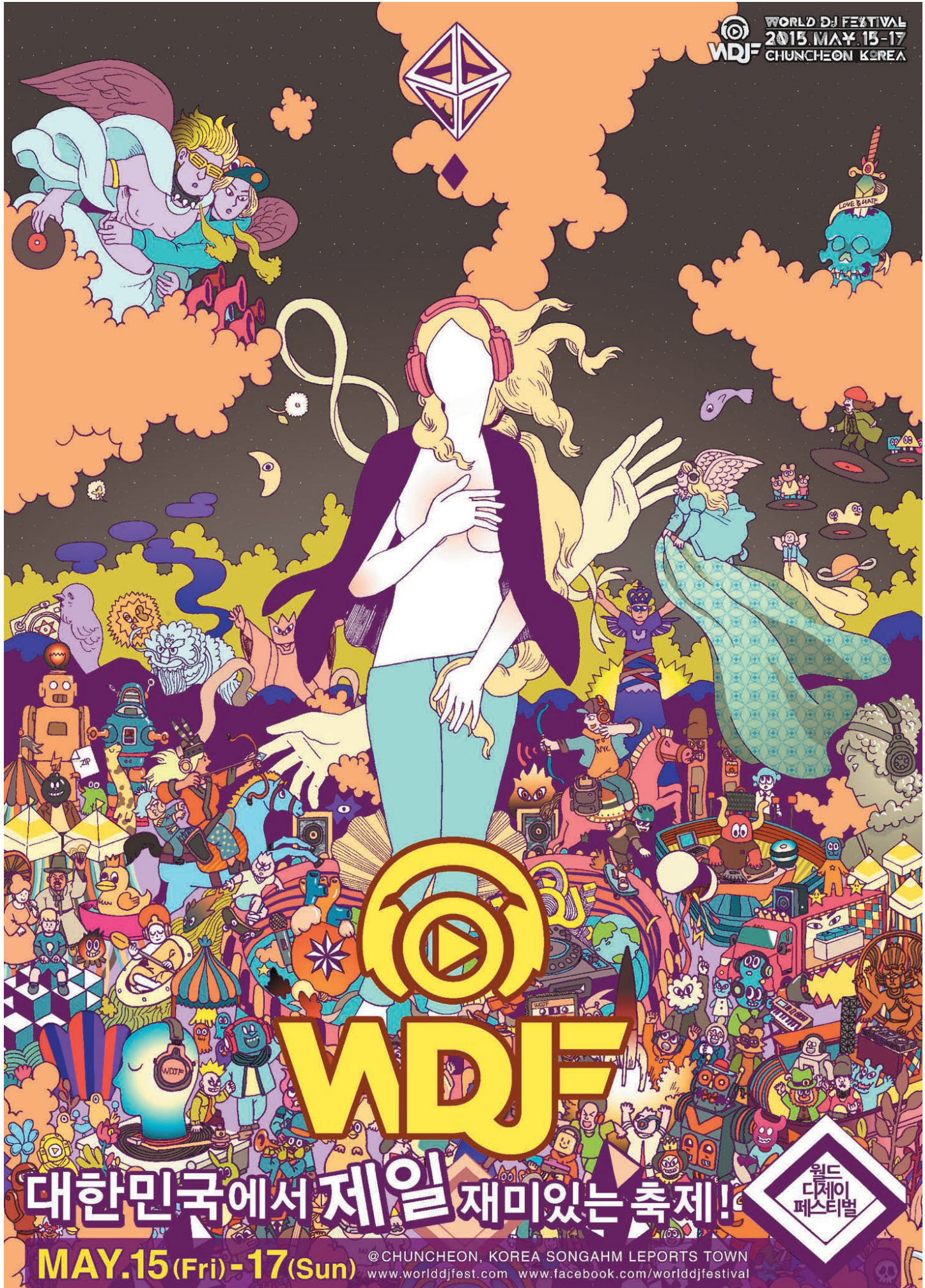


예매페이지 바로가기

기획,주관: KBS esp 후원: 춘천시 江原日報

예매처: INTERPARK / ticket.interpark.com

WORLD DJ FESTIVAL  
2015 MAY. 15-17  
CHUNCHEON KOREA



WDJF

대한민국에서 제일 재미있는 축제!



MAY.15 (Fri) - 17 (Sun)

@CHUNCHEON, KOREA SONGAHM LEPORTS TOWN  
[www.worlddjfest.com](http://www.worlddjfest.com) [www.facebook.com/worlddjfestival](http://www.facebook.com/worlddjfestival)

## 한평생 재봉틀 수리 ... 10년 넘게 자원봉사

약사리 고개 이규옥(72)·조청자(72)씨 부부

3년 전 도로 확장공사로 약사리고개에서 약사천변 옆으로 이전해 새로운 등지를 뜬 이규옥씨. 30여년 넘게 부인 조청자씨와 함께 재봉틀 수리점을 운영하면서도 10여년 이상을 다양한 곳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며 나눔의 정을 몸소 실천하며 살고 있다.

젊어서부터 재봉틀기술을 차곡차곡 익힌 덕에 유명 의류회사에서 일할 정도로 재봉틀기술 실력이 남달랐던 그. “처음 가게 문을 열 때인 1980년대만 해도 일거리가 많아 밤 12시전에 집에 들어간 날이 없을 정도로 바빠 호황을 누린 적도 있었다”며 경기가 좋았던 지난 과거를 회상했다.

서너 명만 들어가도 꽉 찰 정도로 아담한 가게 안에는 세월의 흔적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오래된 수십 개의 재봉틀과 함께 부속품들이 진열돼 있고, 벽만 한쪽에는 자원봉사활동으로 받은 수십 개의 표창장들로 가득하다. 틈틈



이 봉사활동을 해 주변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재향군인회를 비롯해 방법대원, 자연보호활동 등 다양한 곳에서 열성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그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황지우 명예시민기자](#)

## 올드 팝송 부르며 즐겁게 배우는 영어

강원여성자원봉사단 시민대상 교실 운영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있는 강원여성자원봉사단이 여가 시간을 활용한 배움교실을 마련했다.

화요일 오전 중앙로에 위치한 드림센터에서는 1950~1980년대 팝송이 울려 퍼지고 30대부터 60대까지 시민 20여명이 영상을 보면서 팝송을 따라 부른다. 영어 팝송교실은 팝송 원어 발음을 한글로 표기해 원어민 발음으로 교정해 주기 때문에 한글만 알고 있다면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수강생인 오예은(62·학곡리)씨는 “팝송을 통해 영어를 쉽게 익히고 여가시간을 활용해 행복한 힐링을 하면서 정서적으로 도움이 된다. 나아가 영어를 익히고 영어회화도 공부하고 싶은 동기를 얻게 된 모임이다”며 “모임을 통해 서로의 소식을 나누며 정서적 만족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배움교실’은 영어를 접하지 못한 사람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자 시작돼 올해로 9년째를 맞았다. 강의는 퇴직교

사, 학원강사, 원어민 등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강사진의 재능기부로 이뤄진다. 배움교실은 매주 월·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영어기초회화, 영어기초문법, 생활영어, 영어팝송, 중국어 등의 수업으로 구성된다. 상시 모집하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전화 신청하면 된다. 입회비는 학기당 2만원.

이윤옥 단장은 “이번 교육은 장소를 섭외하는데 정말 어려웠다. 봉사에 필요한 공간을 지역에서 마련해 준다면 봉사단이 공간을 활용해 지역사회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여성자원봉사단은 해마다 차상위계층 학생을 위해 파랑새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말벗봉사, 이·미용, 배식봉사 등 지역사회를 위해 300~400여명의 정기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010-9542-6252, ☎242-2542 [함혜인 명예시민기자](#)

## 소중하게 대접받는 ‘봄내’소식지

장학리 아이파크아파트 거치함 설치 눈길

‘봄내’는 춘천시민은 물론 전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연고 인사들이 구독하는 소식지이다.

춘천시정의 새로운 소식과 지역의 역사, 지리, 문화를 비롯한 각종 안내 등 춘천의 모든 것을 담아내고 있다.

1993년 1월에 창간되어 통권291번째 4월호를 발행한 춘천시정소식지 ‘봄내’는 2013년과 2014년에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2년 연속 대상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러나 이렇게 귀중한 소식지가 배부되는 과정은 공동주택의 경우 출입구나 계단에 보호 장치없이 거치됨으로써 흠어져 더럽혀지는 수모를 당하기도 한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동면 장학리 아이파크아파트(7개동 493세대)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에 개선을 건의했고, 관리사무소 임직원들은 고심 끝에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문구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서류함을 구입, 11개 통로 출입구 벽에 부착하고 ‘봄내’ 소식지 거치함으로 변신시킨 것이다.

소식지를 소중히 배부 하고 출입구 환경을 정화하는 일석



이조의 모범적인 실천이 귀감이 되고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춘천시부장 직을 수행하고 있는 임춘환(59) 관리소장은 “소통과 화합으로 더욱 행복한 아파트단지로 관리할 것”이라며 “시정소식지 거치함 설치사업이 춘천의 모든 아파트단지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광택 명예시민기자

## 봄기운 성큼 찾아온 풍물시장

3월 12일은 5일장이 열리는 춘천 풍물시장 장날이었다. 기상대가 예보한 이날의 춘천 날씨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7도이고 낮 최고 기온은 영상 6도며 맑겠으나 구름 낀 날씨가 라고 했다.

아침 해가 구름을 뚫고 비추면서 풍물시장에 완연한 봄이 펼쳐졌다.

아직은 이른 시간이어서 시장을 찾는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통로변에 줄지어 앉아 있는 농촌 할머니들의 앞에는 달래, 냉이, 고들빼기 등 나물을 비롯한 각종 약초와 식품들이 즐비하게 펼쳐져 봄 향기를 물씬 풍기고 있었고, 시장 중간지점에는 명예기자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수십 종의 색깔고운 꽃들이 봄의 날개를 펼치고 있었다.



꽃가게 주인 엄인옥(48)씨는 많은 매출을 기대하면서 “시간이 조금 흐르면 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봄빛 것”이라며 분주히 꽃분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박광택 명예시민기자

## 서면 박사마을 149번째 박사 탄생

당림리 출신 송병훈 씨

국내에서 박사를 최고로 많이 배출한 춘천 박사마을에서 149번째 박사가 탄생했다.

2월 26일 인천에 소재한 성산효대학원에서 서면 당림리 출신 송병훈(74) 계간 아시아문에 발행인이 올해 첫 박사(효학) 학위를 취득함으로써 서면 마을은 지난 1963년 이후 149번째의 박사를 배출해 냈다.

이토록 작은 지역에서 박사가 많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최선화 박사마을관리위원장은 “천성적으로 근면성실하고 진취적이며 미래지향적 열정을 지닌 점”을 들며 “농산물을 팔기 위해 두 개의 강을 건너 억척스럽게 다녔던 어머니들의 희생”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금산리에 건립한 선양탑에 이름이 새겨지는 것을 보고도 자



극을 받는다”고 한다.

서면 일대는 박사마을로 전국에 알려지면서 신혼부부들이 지혜로운 2세를 낳기 위해 신혼여행을 오는 등 박사마을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치솟고 있다.

김영일 명예시민기자

## 책 읽는 군부대

하루에 30분 30페이지 읽는 독서운동 벌여

학곡리 육군 제5899부대(대대장 황성수)는 요즘 ‘13030운동’에 한창이다. ‘13030운동’은 하루에 30분씩 30페이지를 읽는 독서 운동. 저녁시간을 이용해 장병들은 일주일에 대개 2~3권 정도의 책을 읽는다.



학곡리 5899부대 장병들의 독서 모습

도서기증  
받습니다

책 읽는 장소는 내무반이 아닌 부대 내의 ‘작은 도서관’. 황성수 대대장은 “책 읽는 환경을 만들어 책 읽는 습관을 갖게 해주고 싶어 시작했다”고 말한다. 도서관에서 만난 구하람 상병은 평소 책을 잘 읽지 않았으나 독서운동과 부대 내 도서관

을 통해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했으며 “개인적으로 디자인이나 사진 관련 책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부대 내에서 자체적으로 모으기 시작한 책은 현재까지 모두 500여권. 그러나 도서 선별 후 활용 가능 도서는 300권뿐이다. 정영철 준위는 “각자 집에서 가져오는 책으로 한계가 있다”며 “무엇보다 읽을 만한 책을 많이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춘천시민의 기증도 환영한다고 전한 그는 “20대 초반의 군장병들이 읽으면 좋을 만한 양서로 보내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기증문의 ☎261-9980>

범죄피해자, 두 번 눈물짓게 하지 않겠습니다

## 맞춤형 지원 솔루션팀 업무 협약

춘천경찰서(서장 박문호)는 2월24일 경찰서 회의실에서 '2015년 피해자 보호 원년'을 맞아 범죄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피해자 회복 솔루션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업무협약과 간담회에는 최동용 춘천시장과 춘천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등 피해자 지원단체, 유관기관 대표 등 30명이 참석했다.

'피해자, 두 번 눈물짓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범죄피해자 중 ▲살인·강도·방화 ▲중상해, 체포·감금, 약취·유인 등 주요 폭력 ▲교통사고 중상해·사망사건 등과 이외 가정폭력·성폭력 등 범죄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지 않고 재활할 수 있도록 경제적·정신적 지원과 형사절차상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박문호 서장은 "앞으로 필요시 민·관 협력 피해자 회복 솔



루션팀 회의를 수시로 열어 범죄피해자 보호와 회복이 필요한 소외 계층에 대해 기관별 지원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춘천경찰서 청문감사관실 ☎241-1118>

## 사생활 침해 차단,

### '폴-안티스파이' 앱 이용해 보세요

최근 타인의 스마트폰 음성, 문자메시지, 사진 등을 훔쳐볼 수 있는 기능의 스파이앱이 유통되고 있다. 특정인의 개인 사생활을 감시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

이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는 12종의 주요 스파이앱 설치 유무를 판단하고 삭제하는 '폴-안티스파이' 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춘천경찰서 수사과 ☎257-3960>



## 실종아동 예방

### '지문정보 사전등록' 신청하세요

춘천경찰서는 가족단위 나들이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실종아동이 증가할 것에 대비, '지문 정보 사전등록 제도'를 적극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나섰다.

'지문정보 사전등록 제도'는 경찰청 관련 예규에 따라 말이 서툰 아동 및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얼굴사진과 함께 지문정보를 사전에 경찰 전산망에 입력하는 것으로, 향후 혹시 있을지 모르는 실종자 보호 조치 시, 기 입력한 지문정보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신청은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및 경찰서(여성청소년계)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경찰 전산망과 연결된 PC를 통해 사진촬영 및 지문정보를 채취할 수 있다.

또한, 경찰청 실종자 찾기 인터넷 사이트인 '안전드림(www.safe182.go.kr)'에서도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춘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252-8388>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6월29일까지 신고, 7월29일부터 집중 단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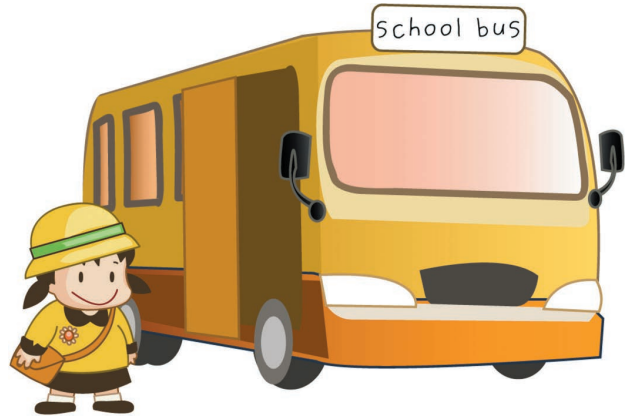
금년도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서는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이 해당된다.

그러나 합기도, 해동검도, 국선도 등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체육시설로 명시되지 않은 시설 및 학원이 아닌 교습소 등은 의무적으로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여야 하는 시설로 볼 수 없다.

다만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를 감안, 자율적인 어린이통학 버스 신고는 가능하다.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려면 승차정원 9인승 이상의 자동차에 황색 도색, ‘어린이 보호’ 표지 및 ‘정지 표시 장치’ 부착, 좌석안전띠는 어린이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하고 승강구 1단 발판 높이는 30cm 이하, 2단 이상 발판 높이는 20cm 이하로 설치하며 앞·뒷면 상단에 적색 황색표시



등을 설치하고 후방카메라 또는 후방경보음 발생장치를 설치한 후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에서 자동차 구조 장치변경승인을 받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7월 28일까지 홍보 계도 후 7월 29일부터 단속 예정이며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영자에게는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춘천경찰서 경비교통과 ☎254-5450>

## 올바른 112신고요령! 3가지를 기억해주세요



### 1 정확한 위치 알리기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누구나 긴장하기 마련입니다. 현재 위치를 알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최대한 정확한 위치를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휴대폰의 GPS 또는 Wi-Fi(와이파이) 등을 이용해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도 있지만 오차로 인해 대략적인 위치만 알 수 있고, 초동대처도 늦어지게 됩니다.

### 2 현재 상황 말하기

범죄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경찰의 대응방법도 달라집니다. 또한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피해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상세하게 현재 상황을 설명해주셔야 합니다.

### 3 허위·거짓·장난 신고는 절대 안 됩니다

허위·거짓·장난 신고는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에게 피해를 가중시키는 위험한 범죄행위입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허위·거짓·장난 신고를 근절합시다.

<춘천경찰서 112종합상황실 ☎243-3317>

# 어린이 여러분, 안전체험하러 오세요

## 4.3~4.4 양일간 옛 캠페이지

###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하여 춘천시에서는 국민안전처와 함께 미취학아동(6~7세) 및 초등학교(13세 미만)를 대상으로 ‘2015년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개최한다.

4월3일과 4일 양일간 옛 캠페이지 내 야외행사장(체험교육)과 중앙초등학교 체육관(연극 공연)에서 가정·재난안전, 유괴 등 신변안전, 교통안전, 자전거안전, 소방안전 등의 안전교육 체험과 안전인형극 관람, 안전우산 만들기, 실종 예방을 위한 아동정보 사전등록 등 종합적인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춘천시와 국민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안전총괄담당관실 ☎250-3653>



### 체험 세부내용

- ▲가정·재난안전(화재·지진 발생 시 요령) ▲신변안전(성폭력 예방, 유괴 대처방법) ▲교통안전(안전띠, 광각후사경 체험) ▲교통안전문화체험(카시트 착용 체험, 횡단보도 안전수칙) ▲자전거안전교육(보호장구 착용) ▲비상대비안전(비상구 찾기, 방독면 체험) ▲승강기안전(승강기 사용체험, 비상버튼 이용방법) ▲구명조끼 착용체험 ▲가스안전(휴대용 가스레인지, 가스누출 점검 체험) ▲전기안전(안전한 전기 사용방법) ▲소방안전(연기체험 비상탈출, 물소화기, 심폐소생술) ▲식품안전(식중독 예방, 올바른 식품 선택 방법) ▲산업안전(안전보호장구 착용) ▲생활안전 인형극(가정 내 세탁기, 콘센트 감전사고 예방, 놀이터 흙놀이 시 주의사항) ▲안전우산 만들기(비 오는 날 안전한 보행방법) ▲실종 예방을 위한 아동정보 사전등록(춘천경찰서) ▲안전통장 만들기



## 밤길 여성 안전, 경찰과 대학생이 함께 지킵니다

춘천경찰서는 대학교 개강에 맞춰 3월부터 강원대, 한림대 총학생회와 합동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야간 범죄 취약시간대에 순찰활동을 통해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대학교 내 후미지거나 어두운 곳 또는 혼자 사는 여성들이 많이 모여 있는 원룸 밀집지역이나 공동주택가, 중·고등학생들이 모여 있을 법한 놀이터, 공원, 공·폐가 등도 꼼꼼히 돌아다니면서 취약개소를 체크하고 있으며 주민의 안부를 묻는 등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주민 접촉을 강화하는 문안순찰도 실시하고 있다.

매주 목요일(한림대)과 금요일(강원대) 밤 9시부터 11까지 2시간 동안 경찰관 1명, 대학생 2~3명, 기동대원 2명이 1~2개의 순찰조를 구성하여 밤길 여성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춘천경찰서 생활안전과 ☎253-8868>





# 봄 캠핑 시 주의하세요

겨우내 움츠렸던 몸을 뒤로하고 맞은 '캠핑의 계절' 봄이다. 많은 사람들이 산이나 계곡으로 각종 장비를 싣고 향하는 요즘, 캠핑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이 날로 뜨거워지는 만큼 안전도 캠핑의 한 부분일 것이다.

### 1. 난방 시 주의

최근 난로와 전기장판을 챙겨 캠핑장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전기장판 대신 두꺼운 캠핑용 매트리스를 여러 개 찡기고 취침 시에는 난로를 끄고 자는 것이 안전하다.

### 2. 낙석, 산사태, 지반 침하 주의

봄은 해빙기이므로 겨우내 얼어 있던 땅이 녹으며 산사태나 지반 침하 현상 등이 일어날 수 있다. 때문에 경사진 곳이

나 구부러진 길이 있는 곳은 피하고 흙으로만 되어 있는 곳보다는 파쇄석이 깔린 곳이 좋다.

### 3. 돌풍 주의

물가에서 캠핑할 때에는 낮과 밤의 풍향이 바뀌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에 주의해야 한다.

낮에 바람을 피하는 방향으로 텐트를 설치해도 밤에 맞바람 때문에 텐트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텐트 외부에 바람막이를 설치하고 반드시 팻으로 고정해주어야 한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6~2020년)

## 5천만 국민의 목소리에 쫓겨갑니다

아이 키우기 좋고, 노후가 안정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의견, 지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저출산·고령사회 국민제안게시판(<http://bit.ly/1vpOrW2>)에 남겨주세요. 국민의 의견이 정책이 됩니다.

www.me.go.kr

대한민국정부 | 제18차 대통령선거 | 보건복지부

## 新GO!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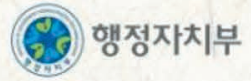
튼튼한 국가 재정의 새로운 시작.

- 신고 상담 국번 없이 ☎ 110
- 팩 스 02-2110-0678
- 인 터 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http://www.acrc.go.kr))
- 방문·우편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경부과천청사 2동 605호)

국민권익위원회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자랑스러운 이웃에게 훈장을 달아주세요

행정자치부 상훈담당관실 ☎02-2100-3538



자랑스러운 이웃에게 훈장을 달아주세요!



# 2015 ★ 국민추천 포상 ★

|추천기간| **6.30.** 까지  
※ 7월 1일 이후 접수된 추천서는 2016년 심사  
  
|포상시기| **12** 월

여러분 주변에 계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을 추천해주세요

## 어떤 사람일까요?

### 나눔을 실천한 사람

- 사회봉사를 실천한 사람
- 재산 또는 재능을 기부한 사람
- 사회적 약자를 돕고 배려한 사람

### 안전에 기여한 사람

- 인명 구조 또는 재산 보호에 헌신한 사람
-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한 사람
-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데 힘쓴 사람

### 희망을 전한 사람

- 역경을 극복해 주변에 희망과 용기를 준 사람
- 국제구호 등으로 대한민국을 빛낸 사람
- 따뜻한 가족애를 실천해 귀감이 된 사람

## 어떻게요?

### 인터넷

www.sanghun.go.kr  
모바일(m.sanghun.go.kr)에서도 가능

### 전자메일

sanghun114@korea.kr 로 추천서 송부

### 우편 또는 방문

행정자치부 상훈담당관실  
(우)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908호  
\* 추천서 서식은 국민추천포상 홈페이지 접수창구  
(www.sanghun.go.kr)에서 다운로드 또는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비치

## 더 궁금해요!

행정자치부 상훈담당관실

02) 2100-3169, 3538, 3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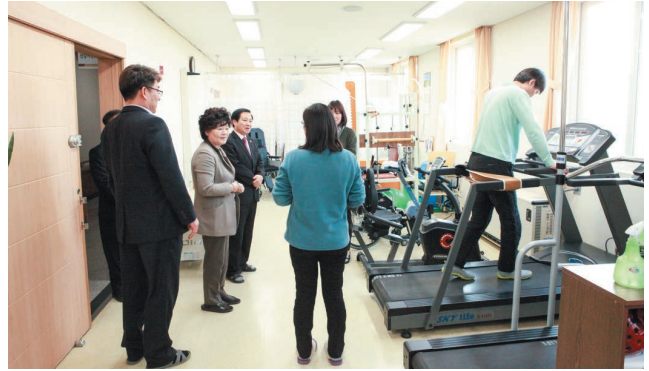
국민추천포상신청



보다 상세한 의정소식은  
QR코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의정활동



의장협의회 위문품을 전달하기 위해 남강 재단을 방문하였다.  
(2015. 3. 4)



제96주년 3·1절을 맞아 류인석선생 동상을 찾아  
참배하였다.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의장단 회의를 개최하였다.(2015. 3. 9)



제96주년 3·1절을 맞아 유희순여사 동상을 찾아 참배하였다.



내무위원회와 복지환경국은 진행 사업의 협의를 위해 간담회를 가  
졌다.(2015. 3.10)



제166차 강원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가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2015.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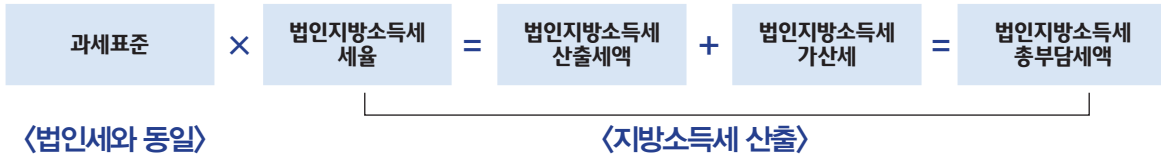


춘천시의회와 춘천시는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불내 장학재단  
설립, 주차장 관리 등 및 택시운수종사자 심터조성, 택시감차  
보상지원, 동계종목 직장 운동경기부 창단, 안정적 맑은 물 공급  
사업계획, 임시청사 운영 계획 등 시정주요현안과 관련 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2015. 3. 11)

# 법인이 납부할 지방소득세가 확 바뀌었습니다.

## ■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강화하고자 '14년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과세표준	법인세 총 결정세액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								
세율	10%	<table border="1"> <thead> <tr> <th>세율</th> <th>10%</th> </tr> </thead> <tbody> <tr> <td>2억원 이하</td> <td>1%</td> </tr> <tr> <td>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td> <td>200만원 + (2억 초과하는 금액의 2%)</td> </tr> <tr> <td>200억원 초과</td> <td>3억9천8백만원 + (200억초과금액의 2.2%)</td> </tr> </tbody> </table>	세율	10%	2억원 이하	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 초과하는 금액의 2%)	200억원 초과	3억9천8백만원 + (200억초과금액의 2.2%)
세율	10%									
2억원 이하	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 초과하는 금액의 2%)									
200억원 초과	3억9천8백만원 + (200억초과금액의 2.2%)									
세액공제감면	국가정책으로 법인세 공제감면 시 지방소득세까지 추가 혜택	해당 없음*								

## ■ 개편에 따른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신고 납부 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정신고 - 사업연도 종료일의 말일부터 4개월 (연결 법인은 5개월)</li> <li>· 청산소득 : 법인세 신고기한 + 1개월</li> <li>· 법인세 세액결정·경정시, 수정신고시 - 1개월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li> <li>·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시 지방소득세 자동연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정신고 - 개편 전과 동일</li> <li>· 청산소득 :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li> <li>· 법인세 세액결정·경정시, 수정신고시 - 법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li> <li>· 신고기한연장 - 내국법인(x), 외국법인(o)</li> </ul>
신고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하여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이행시 미신고 처리(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 결손법인·비영리법인도 신고 대상</li> </ul>
신고시 첨부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li> <li>·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안분계산내역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li> <li>·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li> <li>· 재무제표 등</li> </ul>

\*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파일을 통한 일괄신고가 가능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춘천시 세정과 ☎ 250-4547, 4030, 4548)

# 봄내골 소식

● 후평3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최상순)는 3월13일 홀몸어르신 20여명을 모시고 생신 잔치를 열었다. 지난 2월22일에는 후평3동자율방범대(대장 송명수) 대원 20여명은 설명절 연휴를 맞아 새해맞이 자연정화활동을 펼쳤다.



● 후평2동 소재 수다쟁이 낙지집(대표 김진홍)은 2월17일 어르신 100여명을 초청, 경로잔치를 열고 음식을 대접했다.



● 한국도로공사춘천지사(대표 김학승)는 설을 맞아 2월16일 남면 관내 경로당 10개소에 5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 한국수력원자력(주) 의암수력발전소(소장 임도빈)는 3월3일 어린이재단 춘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서은숙)을 방문, 정월대보름맞이 주민행사를 위한 후원품(총 120만원 상당)을 전달하였다.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성복시설사업소(시설처장 지현우)도 3월4일 동북지관을 방문하여 후원품(총 50만원 상당)을 전달하였다.



● 퇴계동 통장단(대표 현영순) 40여명은 3월10일 퇴계동 국사봉 일원에서 산불조심 캠페인을 실시했다.



●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가 주관한 ITX-청춘열차 개통 3주년 기념행사가 2월27일 청량리역에서 최연혜 한국철도공사 사장, 김진태 국회의원, 최동용 춘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최윤선)은 3월6일 도교육청에서 도내 공사립 유치원 원장, 겸임 원장 385명을 대상으로 유아 인권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진행하였다.

● 춘천호반요양병원(이사장 김경수)은 2월12일 강남동주민센터를 방문, 경로당 후원물품으로 20kg쌀 16포, 소주16박스 등을 기탁했다.



● 2015년 춘천시 유·청소년 스포츠단 발대식이 3월 7일 호반체육관에서 어린이회원, 학부모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 석사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최돈식)는 3월7일 제23회 석사동 옷놀이한마당 잔치를 벌말공원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1,000여명의 주민과 기관 자생단체에서 참여해 옷놀이, 제기차기, 노래자랑 등으로 화합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대한불교 삼승종 삼승사(장주 주지스님)는 3월10일 어린이재단 춘천종합사회복지관에 저소득 가정을 위한 쌀(100kg)과 소금(30kg)을 전달하였다.  
● 알뜰주유소 후평점(대표 이석분)은 2월12일 후평3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저소득층 지원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 춘천북부새마을금고(이사장 신영길)

는 3월9일 신사우동 어려운 이웃과 경로당 13곳에 200만원 상당의 쌀(20kg 40포, 연탄 600장)을 전달했다.

- 후평3동주민센터 제빵반(강사 박선영)은 빵 600개(총60만원 상당)를 만들어 동주민센터에 전달, 후평3동 은하수 봉사단(단장 이재경)은 2월28일 홀몸어르신 90가구를 방문 전달했다.

- 신사우동 소재 북춘천교회(담임목사 정병승)는 설명절을 맞아 2월17일 현금을 모아 마련한 쌀10kg 100포(총 250만원 상당)를 이웃을 위해 신사우동주민센터에 전달하였다.

-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한영희)은 2월9일 여러 지역단체의 온정으로 설명절 음식나눔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마트춘천점(점장 구연홍) 선물세트, 춘천햇شم식품(대표 김상욱) 떡국떡, 동춘천축산농협 하나로마트 거두지점사업소(소장 박일순) 곡금 후원

- 산림조합중앙회 강원지역본부(본부장 김명호)는 2월16일 후평1동 주민센터를 방문, 다자녀 가구를 위해 쌀20kg 10포를 기탁했다.



- 북춘천새마을금고 후평지점(지점장 김순남)은 2월12일 후평3동 주민센터를 방문,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20kg 20포(총 8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 신사우동 소재 북춘천 새마을금고(이사장 최인혁)는 설명절을 맞아 2월12일 홀몸노인 35명에게 ‘사랑의 줌도리 운동’ 쌀20kg 35포(총 17만5천원 상당)를 전달하고, 경로당 5개소에 운영비 100만원을 지원하였다.

- 소양동 소재 음식점 ‘다락’(대표 이미순)은 3월16일 관내 3개 경로당(소양남·여, 충효경로당) 어르신 등 100

여명을 초청하여 불고기 및 갈비탕(총 100만원 상당)을 제공했다.

- 퇴계동 자원봉사단은 3월7일 퇴계동 관내 홀몸노인과 저소득층 57가구에 가구당 200장의 연탄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 봉사단체 (사)강원선우회(회장 석범준)는 설명절을 맞아 홀몸어르신이 기거하는 200여군데를 찾아 3일동안 사랑의 떡국떡 나누기 행사를 하였다. 협력업체와 따뜻한 마음을 지닌 분들의 도움으로 떡을 맞추고, 연화마을 노인요양원에서는 건미역을 300개 이상을 기부하여 뜻있는 행사가 되었다.



- 후평2동 주민자치위원장 이종섭(CC마트 운영)씨는 2월13일 어려운 이웃에게 10롤 화장지 100개(총 5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 충인교회 이종규 목사님과 신도들은 2월13일 후평2동주민자치센터를 찾아 쌀 10kg 30포, 라면 30상자(총 150만원 상당)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탁했다.



- 동산면 동산어린이집(원장 정양혜)은 2월17일 설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생필품(당면, 식용유 등) 50개(총 50만원 상당)를 손수 포장하여 전달했다.

- 북한이탈주민 설맞이 위안잔치가 춘천경찰서와 안협력위원회와 공동으로 2월11일 개최됐다. 북한이탈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자랑과 식사를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설 선물을 전달하며 위로하였다.



- 춘천동부노인복지관(관장 장덕일)은 3월16일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어르신 640여명 참석한 가운데 2015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소양교육을 진행하였다.

- 대한치과의사협회(대표 최남섭)은 2월28일 남면 가정1,2리 경로당을 방문해 이동진료치과를 운영하고 제과, 구강관리용품(총 2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 국립춘천박물관 학예실(실장 권인지) 관계자는 2월16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학대피해아동돕기 후원금 20만원을 전달하였다.

- 강원도학원연합회(회장 이선형)는 2월17일 시청을 방문,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100만원을 기탁했다.

### 〈애향장학금을 전달하신 분들〉

▲오리명가(회장 이성희) 100만원 ▲백향우드(회장 양홍춘) 200만원 ▲월드케미컬(회장 박재희) 200만원 ▲대한전문건설춘천시협의회(회장 심경훈) 200만원

# 알림 마당

## 강습·교육

### 2015년 생활체육 프로그램 <☎264-5750>

#### <당기요트>

- 강습기간 : 5월(1차), 7월(2차)/토, 일(14시~16시)
- 강습내용 : 2인용 요트체험, 가족·친구단위 체험
- 장소 : 송암스포츠타운 수상무대
- 인원 : 차수별 30명(가족 및 일반인)
- 접수 : 춘천시생활체육회 홈페이지 접수

#### <유·청소년스포츠타운 풋살/키즈밸리 클럽>

- 기간 : 4월~12월/토, 일(16~18시, 풋살), (14~16시, 키즈밸리)
- 장소 : 꿈자람구장 풋살경기장/국민생활관(키즈밸리)
- 인원 : 고교생 20명(풋살)/초교생 20명(키즈밸리)
- 접수 : 춘천시생활체육회 홈페이지 접수

#### <시민 생활체육광장 운영>

- 기간 : 4월~10월(06~07시)
- 장소 : △남춘천여중 옆 언덕공원(취빙기재활의원 건너편) △춘천교대 운동장 △공기교 자전거도로 △지석공원
- 운영종목 : 국학기공(1개소), 생활체조(3개소)

### 시립도서관 프로그램

#### <4월 인문학강좌>

- 주제 : 우정과 환대의 사상가, 이반 일리히
- 강사 : 문탁(문탁네트워크 연구원)
- 일시 : 매주 목(19~21시, 당일 현장 접수)
- 대상 : 일반인
- 문의 : ☎245-5109

#### <4월 오페라강좌>

- 작품 : 비제 '카르멘'
- 강사 : 김종로(강원대 교수)
- 일시 : 4.29(수, 19~21시, 당일 현장 접수)
- 대상 : 일반인
- 문의 : ☎245-5109

#### <자아성장 강좌 운영>

- 내용 : 감정을 통한 성숙과 발전을 위한 자아성장 프로그램
- 강사 : 최금순(심리상담사)
- 일시 : 4.1~6.3(수, 10~12시)
- 대상 : 일반인 40명(도서관 홈페이지 접수중)
- 문의 : ☎245-5109

#### <춘천문학여행>

- 일시 : 4.1(수) 09:30~
- 대상 : 일반인 30명(도서관 도서대출 회원증 소지자)
- 코스 : 성문안길

- 모집기간 : 3.20~(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선착순)

#### <동내도서관 문화행사 회원모집>

- 토요 도서관학교 : 초등1~2년/2,4주 토 10시
- 영어동화 함께 읽기 : 초등2~3년/1,3주 일 14시
- 민화그리기 : 성인/매주 수 09:30
- 한지체험 : 성인/매주 목 10:00
- 문의 : 동내도서관 ☎245-5127

### 국립춘천박물관 4월 프로그램

#### <강원서예, 강원서학회전>

- 기간 : 4.14~4.19
- 전시유물 : 강원도 관련 서예 유물과 강원서학회 회원작품 80여 점

#### <문화행사>

- 아간개장 기념음악회 : 4.11(토, 19시) 강당/권나경의 서도·경 소리의 향연
- 가족영화상영 : 매주 토, 일(15~17시) 국립춘천박물관 영화관
- 춘천MBC 임신음악교실 : 가족과 함께하는 음악회/4.29(수) 11시 강당
- 군장병 초청 음악회 : 해설이 있는 음악회/4.29(수) 15시 중앙홀
- 큐레이터와의 대화 : 강삼혜 학예연구사/4.29(수) 16시 상설 전시실
- 박물관 교육 : 제8기 어린이박물관학교, 역사를 품은 토요일박물관, 어린이문화사랑방, 상설체험실
- ※ 상세 일정 국립춘천박물관 홈페이지 참조 <http://chuncheon.museum.go.kr/html/kr/>

### 춘천YWCA여성인력개발센터

(☎243-6474)

#### <재취업설계 집단상담 프로그램>

- 대상 :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여성(구직자 및 경력단절여성), 선착순 10명
- 일정 : 월 2회 진행(월~금/09:30~13:30)

#### <취업성공패키지>

- 대상 : 취업취약계층(차상위, 새터민, 결혼이민자 등)
- 혜택 : 취업성공 시 최대 100만원 성공수당 지급

####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 전사적 회계운영 전문가 : 4.6~8.12/월~금/09시~13시
- HACCP 전문가 : 4.4~4.25/매주 토/10시~18시

#### <캘리그래피 지도사 양성>

- 교육기간 : 6월~7.7(월~금/오후1시~5시)
- 참여대상 : 경력단절여성 및 취업취약계층

#### <프로그램 안내>

- 떡과한과, 부동산공경매, 의류제작, 수납전문가2급, 쇼핑물제작 포토샵 등 다수 프로그램
- 수강료, 개강일자, 훈련시간은 전화문의 및 홈페이지 ([www.cwwomen.or.kr](http://www.cwwomen.or.kr))참조

### 춘천시여성회관 무료교양강좌

- 내용 : EM 실생활 사용법, 정리수납
- 일시 : 4.29(수/16~18시)
- 인원 : 250명(일반시민)
- 장소 : 여성회관 강당(5층)
- 준비물 : 수건, 양말, 티셔츠 각 1벌

□ 문의 : 춘천시여성회관(☎245-5191)

### 전통연희 강습

- 모집분야 : △수요일(진도북놀이·사물놀이·모듬북) △금요일(선반설장고·판굿(상포)) ※요일은 조정될 수 있음.
- 장소 : (사)춘천민예총 풍물국협회(남춘천역 건너편 주유소 옆)
- 문의 : 010-5315-3493(문자)

###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 드림 : 대상(청소년, 성인, 전문가) 강습료(학생 8주 7만원, 성인 8주 8만원, 전문가 10만/12만)
- 해금 : 대상(청소년, 성인) 강습료(4주 7만원)
- 통기타 : 대상(청소년, 성인) 강습료(8주 8만원)
- 상세문의 : ☎251-1318, www.cc1318.or.kr

### 춘천YWCA 프로그램

〈문의 ☎254-4878, 251-2238〉

#### 〈장년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교육〉

- 과정 : △고객상담 전문가(4, 10 개강) 월~금(13~17시/총60시간) △경비및주유원(5, 7 개강) 월~금(13~17시/총60시간)
- 특전 : 교육비 무료, 참여수당 4만원 지급(80% 이상 수료 시)

#### 〈장년인재은행 구인·구직자 모집〉

- 내용 : 장년층 취업상담 및 알선사업, 직업적응훈련 및 직장소양교육, 인턴연계
- 대상 : 만 50세 이상 구직자 및 구인업체

#### 〈준고령자 기업체 취업지원〉

- 사업기간 : 3월~12월
- 지원내용 : 구직 등록한 만 50세 이상 자를 채용한 기관에 1인당 월60만원 3개월간 인턴채용지원금 지원

#### 〈아기돌보미 직업교육〉

- 내용 : 아기돌보미의 이론 및 실기
- 교육일정 : 4.13~4.24(월~금/13~17시)
- 대상 : 아기돌보미로 활동할 분(모집 20명)

#### 〈월빙 효소만들기〉

- 내용 : 발효와 효소, 제철 과일·산야초·진재 등 발효액 만들기 등
- 교육일정 : 3.31~4.23(화, 목/10~12시)
- 대상 : 누구나 가능

#### 〈월-다잉(Well-dying) 프로그램〉

- 주제 : 아름다운 그날을 위하여, 아름다운 이별학교
- 내용 : 죽음의 이해, 아름다운 노년 준비, 호스피스 이해, 유언 등
- 교육일정 : 4.3~7.17(금/10~12시, 총30시간)
- 대상 : 누구나 가능(50세 이상으로 교육에 관심있는 분)

#### 〈성전 꽃꽂이 교육〉

- 내용 : 꽃으로 섬김을 원하시는 분
- 일시 : 금(수시) 오후4시~

### 후평3동 강습 프로그램

- 과목 : △무료한지공예(화/10시~12:30/15명)
- △색소폰(수/15시~17:00/15명) 수강료 3만원(색소폰 지참)
- 접수기간 : 3.23~3.27
- 강습기간 : 4.1~6.30
- 기타사항 : 주민등록상 후평3동 주민 우선 선발, 신청기간 중 접수인

원이 정원을 초과한 프로그램은 추첨선발, 프로그램 및 강의시간은 자치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문의 : ☎245-5697

###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무료교육(상설)

- 교육대상 : 협동조합 설립 희망자
- 교육내용 : 협동조합의 이해와 역사, 설립실무
- 교육기간 : 매주 셋째주 수(오후2시~5시)
- 교육장소 :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교육실(온의동 소재)
- 문의 :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070-8224-2545)

### 제5회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창업아카데미 교육

- 교육인원 : 20명(사업아이템 보유 예비창업자)
- 모집기간 : 3.1~3.31
- 교육일정 : 일반과정(4월~6월), 심화과정(8월~10월)
- 교육시간 : 매주 화, 목(오후3시~6시)
- 교육장소 : 춘천시 청소년수련관 꿈마루
- 문의 :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070-8224-2542)

### 4월 청소년진로체험 '나, 간호학과 간다'

- 접수 : 3.25~(중고생 10명 선착순)
- 일시 : 4.25(토)10~13시
- 내용 : 간호학과 실습체험 및 간호사 직업 안내
- 장소 : 한림성심대 간호학과 실습실
- 혜택 : 진로활동 수료증 발급 (3시간)
- 문의 : 한림대학교부설 한림청소년복지센터(☎256-6214)

### 4월 청소년 진로체험 '커피를 만드는 사람들'

- 접수 : 3.25~(중고생 10명 선착순)
- 일시 : 4.25(토) 11~14시
- 내용 : 핸드드립, 에스프레소 추출 등 카페에서 바리스타가 직접 진행
- 재료비 : 1만원
- 혜택 : 진로활동 수료증 발급 (3시간)
- 문의 : 한림대학교부설 한림청소년복지센터(☎256-6214)

### 호반 인문학 강좌

- 강좌기간 : 2014.12.16~2015.5.19(매주 화 저녁7시)
- 대상 : 시민 누구나
- 장소 : 춘천시립도서관
- 주제 : 언어의 세계(조세연 강원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춘천의 세계(춘천시 학예연구원)
- 강좌일정 : 3.31(인간과 대화, 소통/조세연) 4.7(언어와 상징성/조세연) 4.14(한국의 선사문화-구석기, 신석기시대/김용백) 4.21(한국의 선사문화-청동기시대/김용백)
- 주관 :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문의 : 〈춘천, 호반의 인문학힐링도시〉추진팀 ☎010-9484-0229

## 공모·모집·신청

### 제22회 김유정 기억하기 전국문예작품공모

- 접수기간 : 3.1~4.30

- 글제 : 김유정의 작품 제목 중에서 택일
- 내용 : 자유
- 대상 : 중등부, 고등부, 대학 · 일반부
- 부문 : △시(시조 포함) 2편 이상 △산문(중등부:A4 2매~2.5매/글자크기 12) (고등부, 대학 · 일반부:A4 3매~3.5매(글자크기 12))
- 발표 : 5.8(금), 강원일보 및 김유정문학촌 홈페이지
- 시상식 : 5.15(금), 각 부문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상장과 상금)
- 문의 : 김유정문학촌(☎261-4650)
- <참고> 김유정 작품 제목 ▲소설 : 산골 나그네, 총각과 맹꽁이, 소낙비, 노다지, 금 따는 콩밭, 금, 떡, 만무방, 산골, 술, 홍길동전, 봄□봄, 안해, 심청, 봄과 따라지, 가을, 두꺼비, 봄밤, 이런 음악회, 동백꽃, 옥도끼, 생의 반려, 정조 眞摺, 슬픈 이야기, 따라지, 땀별, 연기, 정분, 두포전, 애기, 형, 야영 夜樓
- ▲수필 : 잎이 푸르러 가시던 님이, 조선의 집시, 나와 귀뚜라미, 5월의 산골작이, 어떠한 부인을 맞이할까, 전차가 희극을 낳아, 길, 행복을 등진 정열, 밤이 조금만 잘렸드면, 강원도 여성, 병상영춘기 炳未迎春記, 내가 봄이런가

### 봄내예술제 시민자유무대 참가자 모집

- 접수마감 : 4.15. 오후6시
- 공연일시 : 5.24(일) 14~17시
- 무대장소 : 공지천 의암공원 야외공연장
- 참가내용 : 국악, 무용, 연극, 연예음악(통기타 라이브, 가요), 마임, 매직, 사물놀이, 댄스스포츠, 벨리댄스, 색소폰 연주 등 장르 제한없음
- 문의 : 춘천예총(☎243-4360)

### 제10회 봄내 주부가요제 참가자 모집

- 신청마감 : 4.15. 오후6시까지
- 참가자격 : 춘천시 거주하는 주부
- 행사일시 : 5.23(토) 오후5:30~7:20(※예심 4.26 오후3시 국립춘천박물관 앞 춘천연예협회)
- 행사장소 : 공지천 의암공원 야외공연장
- 시상 : 대상(50만원) 최우수상(40만원) 우수상(2명 30만원) 장려상(2명 20만원) 가창상(2명 10만원)
- 문의 : 춘천예총(☎243-4360)

### 봄내예술제 청소년 댄스락 페스티벌 참가 모집

- 접수마감 : 4.15 오후 6시까지
- 참가자격 : 춘천시 중고생
- 행사일시 : 5.24(일) 오후8시
- 예심 : 4.25(토) 오후3시 국립춘천박물관 앞 춘천연예협회
- 행사장소 : 공지천 의암공원 야외공연장
- 시상 : 대상(30만원) 최우수상(25만원) 우수상(2명 각20만원) 장려상(2명 각10만원)
- 문의 : 춘천예총(☎243-4360)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교육생 모집

- 접수마감 : 4.25까지(20명 선착순)
- 지원자격 : 춘천시 다문화가족 여성결혼이민자, 청년실업자 등
- 교육기간 : 4.27~7.24(13~17시)
- 교육특징 : 교육기간전체 교통비(인턴실습기간 식비포함)지원
- 취업분야 : 춘천관내 중소기업 무역회사 등

- 교육기관 : (사)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강원도지회
- 문의 : ☎251-9080~1

### 4월 청소년봉사활동 '도란도란' 모집

- 접수 : 3.25~4.8(중고생 20명 선착순)
- 봉사일시 : 4.11(토)13~18시
- 봉사내용 : 춘천남만시장 어르신들께 간식배달, 도란도란 이야기
- 혜택 : 자원봉사확인서 발급(5시간)
- 문의 : 한림대학교부설 한림청소년복지센터(☎256-6214)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청소년참가자 모집

- 모집기간 : 3.24~4.30
- 대상 : 청소년 만14~25세(30명)
- 활동내용 : 신체단련, 자기개발, 봉사활동, 탐험활동 등 4개 영역의 포상활동
- 설명회 : 4.4(토) 14시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
- 선발방법 : 1차-서류(신청서)검토, 2차-설명회 및 상담
- 참가혜택 : 국제포상협회 인증서, 여성가족부 인증서, 배지수여
- 문의 :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251-1318)

### 장애인 치료 및 프로그램 이용자 모집

- 개별 · 그룹치료서비스 :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감각통합치료
- 사회재활 · 직업재활서비스 : 신체활동, 한글교육, 도예교실, 직업훈련 등
- 신청방법 : 초기상담 및 영역별 진단 후 판정통보
- 문의 :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070-4699-6461)

###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자원봉사자 모집

- 기간 : 연중수시
- 대상 : 지역주민 누구나 가능
- 활동내용 : 프로그램 진행보조, 복지관 환경미화, 장애인 배식도우미, 재능기부, 기타행사
- 후원 · 참여 : ☎070-4699-6453, www.ccrehab.or.kr 신청
- 혜택 : 봉사활동 인증서 발급
- ※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후원자도 모집합니다.

### 육군 부사관(남) 모집

- 선발인원 : 남자 000명
- 선발병과 : 보병 등 19개 병과 33개 특기
- 지원서접수 : 4.6~5.1
- 필기평가 : 5.23(토,08:30~14시)
- 지원자격 :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만18~27세 이하
- 지원방법 : 육군모집 홈페이지(www.goarmy.mil.kr) 지원서 작성
- 문의 : 강원영서지역 모집홍보관(010-5088-3737)

### 택견무료회원 모집(3기)

- 모집인원 : 00명
- 대상 : 택견 수련으로 건강과 호신술에 관심 있는 모든 분(주부, 어르신 환영)
- 모집기간 : 4월 15일까지
- 수련장 위치 : 남춘천초등학교 앞

- 수련시간 : 매주 화(오전 10시, 저녁 7시)
- 문의 : (사)강원택견문화원(☎242-9191) 010-7180-8592

### 스마트그리드 전력망구축 숙련기술인 양성모집

- 모집분야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 지원자격 : 강원지역 구직자 및 미취업자, 학력 및 성별 제한 없음
- 원서마감 : 4.12까지(현재 접수 중)
- 입학특전 : △강원도한국전기공사협회 회원 기업체 취업알선 △교육비, 식비, 기숙사비 전액 국가지원 △수료 후 대한전기협회 배전기능 자격증 발급 △귀가차량 운행(매월 2,4주 금요일 서울, 춘천, 원주방면)
- 문의 : 강원인력개발원(☎033-430-9734~7)  
http://kw.korchamhrd.net

### 왕초보 영어회화 수강생 모집

- 접수 : 3.23~4.6(전화접수)
- 교육기간 : 4.7~7.28(화요일)
- 시간 : 오전반(10~12시)15명/오후반(14~16시)15명
- 수강료 : 6만원(4개월)
- 문의 : (사)식량나눔재단(☎255-0101), 010-9727-3347

### 춘천여성민우회 영화모임

- 모임시간 : 매주 수(오후 2시~4시)
- 모임장소 : 후평동 '소양정보도서관' 시청각실
- 4월 상영(예정)작 : △4.1(기적) △4.8(안경) △4.15(터닝 포인트-사랑과 갈래의 나날) △4.22(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4.29(오발탄)
- 문의 : 춘천여성민우회(010-8827-6406/010-3911-4323), 홈페이지 참조

###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무료체험 신청

- 접수기간 : 상시(※단체접수만 가능)
- 내용 : 방송국 가상체험 및 뉴스 제작
- 종류 : △꿈지락뉴스 제작(초등~일반 대상/인원 15~25명) △꿈꾸는 TV(유아 대상/인원 15~25명)
- 운영일정 : 월~토(10~12시/14~18시)
- 장소 :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서면 금산리 소재)
- 문의 : ☎ 240-2311

### 춘천시청소년수련관 <문의 ☎244-1387, 1288>

#### <미래비전(바우처) 대상자 모집>

- 서비스내용 : 진로리더십교육, 몸짱만들기, 체험활동 등
- 대상자 : 8~15세 청소년(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 장소 : 퇴계주공7단지 꿈+센터
- 자부담비 : 1만4천원 또는 2만8천원

#### <꿈키움뮤직케어링(바우처) 대상자 모집>

- 서비스내용 : 바이올린, 플룻, 첼로, 클라리넷(무료대여)/음악 및 미술 상담프로그램 등
- 대상자 : 7~18세 청소년(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 장소 : 춘천시청소년수련관, 퇴계주공7단지 꿈+센터
- 자부담비 : 2만원 또는 4만원

### 한울림합창단원 모집

- 대상 : 합창에 관심있고, 독보 가능한 20~60세 여성·남성

- 입단방법 : 수시 오디션을 통한 입단
- 연습 : 매주 목(19:30/후평동 합창단 연습실)
- 지도 : 성악가 오성룡(테너)
- 문의 : 단무장(010-8460-3754)

###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장학생 선발

-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장학생 선발대상 :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초·중·고 학생
- 신청기간 : 3.2~4.30
- 문의 : 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261-5000 ☎080-749-7171)

## 행사

### 월드 디제이(DJ) 페스티벌

- 일시 : 5월15~17일(2박3일/오후2시~새벽6시) 야외공연
- 장소 : 송암스포츠타운 일원의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야구장 등
- 내용 : 일렉트로닉 중심의 힙합, 인디, 락 등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음악공연을 중심으로 캠핑과 여러 종류의 예술체험을 결합한 형태
- 티켓 : 당일 현장판매(1일권 10만원, 2일권 18만원)
- 참가인원 : 2만여명 예상
- 문의 : 춘천시 관광정책과(☎250-3069)

### 2015 춘천TOP밴드 페스티벌

- 기간 : 5.1~5.3 □ 장소 : 삼천동승마장 인근 수변공원
- 출연 : 이승환, 노브레인, 장미여관, 갤럭시익스프레스, 포스트패닉, 일락 등
- 행사구성 : 슈퍼밴드, 인디밴드 공연, 캠핑존, KBS탑밴드 예선녹화 등
- 현장티켓가격 : 1일권(7만7천원), 2일권(9만9천원), 3일권(12만1천원)
- ※ 단, 춘천시민 5월1일 입장권 1,000매, 5월3일 입장권 1,000매 무료초대권 배부
- 배부처 : 읍면동센터 □ 배부일시 : 4.22 ~ 4.24
- 기획제작 : KBS/esp엔터테인먼트(☎070-8886-9219/02-455-7980)
- 문의 : 춘천시 관광개발과(☎250-3073)

### 제93회 어린이날 기념 '춘천시 어린이 대축제'

- 일시 : 5.5(화)10~17시
- 장소 : 삼천동 승마장 인근 수변공원
- 참여대상 : 2만5,000여명(어린이 및 시민)
- 주요내용 : 퀴즈 이벤트, 캐릭터 뮤지컬 및 연극, 마술쇼, 만화메들리 합창, 비보이공연 및 댄스페스티벌, 사탕나라에서 온 여름산타, 가족단위 단체 게임, 어린이 장기자랑, 행운권 추첨 등
- 문의 : 춘천시 여성가족과(☎250-4410)

### 파란글꽃그림잔치 및 동요부르기 대회

- 일시 : 5.2(토)10:30~17:00
- 장소 : 공지천 생활체육공원(인라인스케이트장) 및 야외음악당
- 대상 : 초등생 및 미취학 아동 1,500명
- 참가비 : 백일장, 사생대회(각 3천원/분행사시) 동요부르기대회(5천원 예선시)
- 동요부르기대회 예선 : 4.4(토/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 문의 :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254-7244)

# 구인

## 4월 구인정보

● 워크넷 [www.work.go.kr](http://www.work.go.kr) 등록업체 ● 문의 ☎250-3782(일자리지원센터)

\*위 정보는 게재시점(3.19) 기준입니다.

업체명	모집직종	채용인원	모집기간	급 여	자격요건	연락처
춘천아트밸리(이상원미술관)	이탈리안레스토랑 주방장	1명	3.10~채용시	회사내규	조리사	243-2114
	게스트하우스 프론트	1명	4.1까지	회사내규	20세~35세	사람인 입사지원
(주)두자산업	생산물류관리(남)	1명	3.18~채용시	회사내규	운전면허증	250-3782
	(주)두자산업회계사무(여)	1명			전산능력	
(사)강원도문화도민운동협의회	전입계약직	2명	3.25~3.27접수	회사내규	홈페이지참고	255-9260
(사)담배인삼공제회(세인트룩스)	홀서비스매니저	1명	3.18~채용시	연봉2700만	40대미만	250-3782
(주)케이디파워	LED분야제품 디자인	1명	3.18~채용시	회사내규	관련학과대졸(2~3년)	245-8060
(주)한원레저	남춘천컨트리클럽 프런트직원	1명	3.18~4.16	면접시협의	경력1년이상	269-3132
전기기술사사무소 예강ENG	전기감리기술자 통신감리기술자	1명	4.6까지	월130만이상	소방설비기사	255-3254
한국산업개발(주)	환경시설관리자	1명	3.18~채용시	월160만이상	수질환경기사 대졸	254-9948
(주)청우라이프사이언스	연구관리자	1명	4.11까지	연봉3000만	경력5년이상 대졸이상	02-373-3601
(주)상도종합상사	배송및납품 운전원	1명	3.09~채용시	월170만원	운전면허1종	261-7809
(주)위너관광개발	서비스종사원 골프장레스토랑	5명	3.02~채용시	월170만원	청년층우대	260-1972

### <녹색성장>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 일시 : 3.27(금)10시~11:30
- 장소 : 옛 캠프페이지 부지
- 수목수량 : 묘목 5,000그루(매실나무 등 4종)
- 배부방법 : 1인 3그루(선착순)
- 문의 : 춘천시 산림과(☎250-3138)

### 신사우동 새마을부녀회 '제1회 사랑의 바자회'

- 일시 : 4.20(월)10시~16시
- 장소 : 신사우동주민센터 광장
- 참석인원 : 500명
- 물품 : 의류, 잡화, 생필품, 먹거리 등

### 김유정 선생 78주기 추모제

- 일시 : 3.29(일) 오전11시
- 장소 : 김유정문학촌
- 주최·주관 : (사)김유정기념사업회
- 문의 : 261-4650

## 행정·기관

### 2015년 지역민방위대장 교육

- 교육일시 : 3.30(월) 09시~13시
- 교육장소 : 춘천문화예술회관
- 교육인원 : 지역민방위대장 632명
- 교육내용 : 국가안보, 교통안전 및 전기재해 발생시 응급조치, 끝.
- 문의 : 춘천시 안전총괄담당관실(☎250-3264)

### 2015 청소 현장체험 안내

- 체험기간 : 4월~10월(화, 목 17시~23시)
- 참여대상 : 학생, 시민, 공무원 등 800명

- 체험 인센티브 : 봉사활동(2~5시간) 인정, 상시학습(2~5시간) 인정, 소각용 종량제봉투 지급(20ℓ /10매)
- 신청기간 : 희망체험일로부터 1주일 전
- 접수문의 : 춘천시 청소행정과(☎250-4350)

### 2015년 직불제 신청하세요(쌀·밭·조건불리·친환경)

#### <쌀소득보전직불제>

- 신청기간 : 3.2 ~ 6.15
- 대상자 :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로서 쌀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대상농지 : 1998~2000년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
- 지급단가 : 평균100만원/ha
- 접수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센터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 문의 : 춘천시 농업기술센터(☎250-3768), 콜센터(☎1644-8778, 1670-8002)

#### <밭농업직불제>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로서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대상농지 : 2012~20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신청연도에는 휴경, 시설면적 포함) △당해연도 밭농업보조금 대상 품목(26개품목) 재배에 이용되는 지목이 전(田)인 밭 △쌀소득보전직불금 대상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당해연도 6월까지 해당 농지의 휴경기간에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
- 지급단가 : 밭 고정(25만원/ha) 밭 재배 26개품목(40만원/ha)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 50만원/ha
- 접수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센터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 문의 : 춘천시 농업기술센터(☎250-3768), 콜센터(☎1644-8778, 1670-8002)

#### <조건불리지역직불제>

- 신청기간 : 3.2 ~ 6.15
- 신청자격 : 지급대상농지에서 농업경영체 등록된 실경작 농업인(신

청일부터 보조금 확정일까지 농지소재 면에 거주, 주민등록기준)

- 대상농지 : 2003~2005년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및 초지)
- 대상지역 : 8개면(동면, 동산면, 신동면, 남면, 남산면, 서면, 사북면, 북산면)
- 지급단가 : 논, 밭, 과수원(50원/㎡), 초지(25원/㎡)
- 접수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센터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 문의 : 춘천시 농업기술센터(☎250-3768), 콜센터(☎1644-8778, 1670-8002)

### 〈친환경농업직불제〉

- 대상자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지급단가 : 논ha당(유기60만원, 무농약40만원, 저농약21만7천원) 밭ha당(유기120만원, 무농약100만원, 저농약52만4천원) 유기지속직불ha당(논30만원, 밭60만원)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추가 3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 지급)
- 지원한도 : 농가당0.1 ~ 5.0ha
- 신청기간 및 접수처 : 3.1 ~ 3.31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센터
- 문의 : 농정과(☎250-3768)

### 저수지, 하천제방 이상징후 발견 시

- 저수지, 하천제방 등에 이상징후를 발견한 때에는 관련기관에 즉시 신고바라며,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통제자와 시설관리자의 안내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신고처 : 춘천시 건설과(☎250-3198) 재난상황실(☎250-3319)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시 받는 불이익

-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됩니다.
- 납기 경과시 가산금이 부과됩니다.(최초 5%, 이후 매월 1.2%씩 60개월(최대 77%))
- 소유재산이 압류되고 공매처분 됩니다.
- 체납자 사망·법인 소멸 후에도 과태료 체납처분을 실시합니다.
- 관허사업의 정지·취소 및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정보 등이 제공되어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과태료는 납기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춘천시 차량등록사업소 ☎250-3245〉

### 춘천시 하수관로 임대형 민자사업 준공에 따른

## 배수설비 유지관리 및 민원접수 안내

- 준공일자 : 2015.1.31 준공(2011.2월 착공)
- 사업비 : 908억2,300만원
- 사업량 : 하수관로 신설 8만1,351km, 개보수 8,063km, 맨홀펌프장 4개소
- 민원접수 : 춘천시하수관로BTL운영사업소(☎070-4632-6637) 팩스(☎070-7500-5419)
- 접수내용 : 하수관로 하자, 악취, 막힘 등
- 사무소소재지 :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776(장녕빌딩 3층)

www.citf.or.kr

2015  
**춘천국제연극제**  
여행을 떠나요

05.09-16  
춘천시내 곳곳

17th Chuncheon International Theatre Festival

주최: 서민법인 춘천연극제 춘천 MBC    주관: 춘천국제연극제 운영위원회  
facebook.com/happycitf    blog.naver.com/citf2011    ☎ 033.241.4345-6

자녀마음과 부모마음이 만나 주택연금이 되었습니다

주택연금이란?

- ◆ **주택연금**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
- ◆ **가입대상**  
주택소유자 기준 만60세이상
- ◆ **상품특징**  
재산세 등 세금감면과 면제  
집값이 하락해도 동일 연금 지급  
평생거주 평생 소유권 보장  
사망후 배우자 동일연금 지급  
집값보다 더 받으면 정부부담  
집값보다 덜 받으면 자녀상속  
기초연금 수급가능성 확대

국가가 보증하고 강원도가 권장 하는 주택연금이 당신의 행복노후를 후원 합니다.

HF 한국주택금융공사 강원지사    평생거주 평생지급 주택연금  
☎ 033) 259-3615



가족과 직장이 함께 행복해지는



### 나부터 시작하는 가족사랑 실천약속

#### 우리 가족은...

1. 매일 30분 이상 대화, 산책, 놀이 등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2. 매주 2회 이상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합니다.
3. 매월 1일 이상 가족과 함께 데이트를 합니다.
4. 매주 1회 이상 떨어져 사시는 부모님께 안부전화를 드립니다.

#### 우리 직장은...

1. 알찬 일과로 정시퇴근을 실천합니다.
2. 매주 수요일은 '가족사랑의 날'로 하여 정시퇴근 후 가족과 함께 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합니다.
3. 직장탐방/가족친화 교육 등 가족까지 배려하는 활동을 마련합니다.
4.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여 나눔문화를 확산합니다.

### 가족친화인증 기업이란?



탄력근무, 육아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중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을 말합니다.  
가족친화 인증의 효력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며 (2년 연장 가능), 인증마크를 기업 홍보 등에 활용하여 기업 이미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TIP 1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가족송'을 즐겨 보세요~

여성가족부(mogef.go.kr) > 정책가이드 > 가족 > 가족친화환경 조성 > 가족사랑의 날 운영 > 가족송 가사, 음원 다운로드 가능

TIP 2 가족사랑의 날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정보~

건강가정지원센터 familynet.or.kr 1577-9337